

18일 Market Index			
코스피	2515.40	코스닥	835.89
	(+20.74)		(+1.70)
금리 (미국 9년)	3.316	환율 (원·달러)	1334.20
	(+0.042)		(-3.00)

삼성전자
‘1초에 영화 2편’
12나노급 D램 양산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유영봉안소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오월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尹, 5·18 기념식 참석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동반 입장 정부차원 호남 경제발전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광역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에서 5·18민

주화운동 당시 자식을 잃은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을 했다. 통상,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 벗어난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와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이어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냈다”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완성하는 것은 호남의 경제 발전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산업부,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中에 뺏긴 왕좌 되찾자 민간 손잡고 65조 투자

〈삼성·LG 등〉

경쟁국의 거센 추격을 받는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는다. 민간에선 5년간 65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특화단지 지정, 규제 해소,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 투입 등 기업 투자에 화답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스플레이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업계 대표 및 산업관계자들과 함께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오다, 2021년 이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중국에 이어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순으로 시장을 차지한다.

中·日·대만 등 경쟁국 추격 거세져 국내 생산증설 등 5년간 65조 투입 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적극 지원

투명·XR·차량용 등 신시장 창출로 기술격차 5년 이상으로 확대 추진

다만,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부가 시장인 OLED 중심으로 세계 1위다. 이를 바탕으로 OLED TV, 폴더블 폰 등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 프리미엄 ICT 제품들을 출시해 왔다.

하지만, 경쟁국의 추격 또한 거세다. 중국은 LCD에 이어 OLED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일본은 OLED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마이크로LED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먼저, 우리 패널 기업들은 IT용 OLED 생산라인 증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등에 2027년까지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세제, 정책금융 지원, 인프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민간투자를 뒷받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5개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지정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은 신규 패널시설 투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자금 등에 약 9000억원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열린 무기발광산업 육성 얼라이언스 출범식 및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른 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전략세부기술을 신속히 확정한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적극 검토해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인프라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65조원의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실행되면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109조원의 연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XR·차량용 등 3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OLED 시장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3대 융복합 시장 매출은 2022년 9억달러에서 2027년 150억달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여기에 향후 5년간 약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리처럼 투명하면서 얇고 가벼운 투명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산업과 접목하는 실증 연구개발에 약 1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메타버스 시대에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XR기기용 초소형(패널 크기 0.3인치 이하) 디스플레이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실증 연구개발 지원 등에 약 3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 패널, 소부장, 콘텐츠, 세트기업 등으로 이뤄진 민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XR시장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경우 제품 안전성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구축, 관련 실증사업에 약 200억원을 투자한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우선 약 420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거품 논란, MSCI 불발 등 겹악재 속수무책

2차전지 관련주 급락

에코프로그룹 한 달 새 20% 뚝
테슬라 성장둔화 우려 등 겹쳐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의 황제주로 떠오른 에코프로그룹의 주가가 한 달 새 20% 넘게 하락했다. **〈관련기사 4면〉**

고평가 논란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불발,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재 추가 조

정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도 있는 반면 저가매수 시점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고점이었던 지난달 11일 82만원에 비해 31% 가까이 떨어졌다. 에코프로비엠도 고점 대비 26.62% 떨어졌으며,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고점에 비해 31.87%가량 하락했다. 금양, 포스코퓨처엠, 엘엔에프 등도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성장둔화 우려, 개별기업 악재 등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 관련주에서 손을 빼

기 시작한 데 반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포스코홀딩스를 2조9211억원을 팔았으며 에코프로를 8018억원 순매도했다.

이밖에도 포스코퓨처엠(3140억원), LG화학(2166억원), 엘엔에프(1967억원), 에코프로비엠(1420억원) 등을 처분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를 3조2868억원을 사들였으며, 에코프로를 9827억원 순매수했다.

/원관희 기자 wkh@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박찬대 “한동훈, 가상화폐 정보 공개 거부”… 법무부 “사실 아냐” **/사진 뉴시스**
▲ 與 “민주, 김남국 의원직 사퇴 먼저 결단하라”

▲ 北, 과거 쏜 인공위성 2개 궤도 운행… “신호 전송 못하는 ‘죽은 위성’”
▲ 총알 뚫리는 방탄복… 성능조작 알고도 입혔다



▲ 김동연, 트뤼도 총리와 가평전투 참전 캐나다軍 추모 **/사진 뉴시스**
▲ ‘지방규제 자문 전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1초에 영화 2편’ 12나노급 D램 양산… 메모리 시장 ‘활력’

〈30GB 용량 UHD〉

SAMSUNG

세계 첫 12나노급 16Gb DDR5 D램 14나노D램 대비 생산성 20% 향상 소비전력 23% 개선, 전력효율 상승 최고 속도 7.2Gbps에 오류 최소화

삼성전자가 모처럼 반도체 미세공정 초격차를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12나노급 16Gb DDR5 D램 양산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나노급 D램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AMD 플랫폼 기반 호환성 검증을 마쳤다. D램은 먼저 연구소 등에서 개발을 끝내고 양산 라인을 구축 후 테스트 제품 생산과 함께 여러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양산된다.

12나노급 D램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



삼성전자 12나노급 D램.

초일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론이 먼저 5세대 10나노급(1b) D램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테스트 제품 외에는 실제 의미 있는 양산까지 시작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가 한단계 낮은 13나노급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SK하이닉스도 연내 1b D램 양산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선포는 12.8나노다. SK하이닉스와 같다. 메트로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b부터는 경쟁사보다 0.5나노 선포를 줄이기로 결정하고 개발을 진행해왔지만, 완성 단계에서 수율 난이도 상승과 시장 침체 우려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계획을 수정했다. 대신 수율이나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경쟁사보다 우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공정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패키징 등 대안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 속,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한계를 넘어서며 실력을 증명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12나노급 D램이 14나노 D램 대비 생산성이 약 20%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소비 전력도 약 23% 개선, 전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전율이 높은 신소재를 적용해 캐패시터 용량을 확대, 오류도 최소화했다. 최고 동작 속도는 7.2Gbps다. 1초에 30GB 용량 UHD 영화 2편을 처리하는 속도다. 동작 전류 감소 기술과 데이터를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노이즈 저감 기술 등도 적용해 업계 최선단 공정을 완성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2나노급 D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침체됐던 메모리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버 업계를 중심으로 DDR5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악재 중 하나로 평가됐던 상황, 성능과 효율을 대폭 높인 차세대 DDR 5D램이 수요를 재촉하는데 더해 DDR

4D램과 가격 격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최근 감산에 동참하면서 차세대 제품 생산만은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2나노급 D램 라인업을 확대하며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팅 등 다양한 응용처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 이주영 부사장은 “업계 최선단 12나노급 D램은 차별화된 공정 기술력을 기반으로 뛰어난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을 구현했다”며, “삼성전자는 대용량 처리가 요구되는 컴퓨팅 시장 수요에 맞춰 고성능, 고용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으로 제품을 적기에 상용화하여 D램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EU, 세계 첫 가상자산법 통과 국내 ‘2단계 입법’ 속도내나

발행 및 투명성·공시 의무 등 주요내용
정무위도 이용자 보호 1호 법안 의결
규제보완 2단계 입법, 미카 참고할 듯



세계 최초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되면서 각국의 입법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안(MiCA·미카)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카를 참고해 국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법을 승인했다. 2020년 초안을 발의한 후 확정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미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투명성, 암호화폐 공시 의무, 내부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4억 원)로 제한될 예정이다.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미카는 EU 관보에 게재되며 내년 6월부터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스반테손 스웨덴 재무장관 겸 EU 이사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를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얼룩지는 것을 방지할 규제가 시급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 확정으로 국내 역시 입법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단계 법안이다.

정무위는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미카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단계 법률 의결 직후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세계 각국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법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나라별 규제안이 다를 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내용 역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혁신을 추진하고 산업 위험성은 줄이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공개(ICO), 거래소공개(IEO),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분별한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사후관리 소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해련 정무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괄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문치료형 4박5일 금연캠프

건강하게 금연해요

무료 건강 검진(100만원 상당)
금연진료, 심리상담, 운동치료, 영양상담

- 장소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4호선 평촌역)
- 대상 : 20갑년 이상 중증, 고도흡연자
- 비용 : 무료 (참가비 10만원 수료 시 전액 환급)
- 신청 및 문의 : 031-385-9030, 010-3305-9030



금연캠프신청



금연캠프영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We路 캠페인
한림 대학교 성심 병원

금리 하락에 ‘예금이탈’ 가속 신규 가계대출은 1년새 2배 ↑

금리, 건축 이전수준 근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전환
年 3% 미만 예금상품 속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규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늘고, ‘예금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금리는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예금상품 39개 중 기준금리(연 3.50%)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상품별 12개월 만기 최고 우대금리는 ▲농협은행 NH고향사랑 기부예금 3.80%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3.53% ▲KB국민은행 KB스타(star)정기예금 3.51% 등이다.

◆ 예금상품 매력 ↓

특히 이자가 연 3.0%에도 못미치는 예금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중 6개가 연 2.0% 금리에 불과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운데 1년 만기 정기예금 대표상품 가운데 금리가 3.50% 이상인 상품은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연 3.53%) 뿐이다.

이처럼 금리 매력이 사라지면서 은행의 4월 말 수신 잔액(2204조9000억원)은 3월 말보다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14조8000억원, 정기예금도 6조4000억원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예금상품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최근 통화긴축 기조가 주춤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춰 수익방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반면, 최근 대출금리가 2021년 8월



은행 대출금리가 1년 6개월 전 수준인 3%대까지 떨어지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시내의 은행 외벽에 붙어있는 대출금리 안내문. /뉴시스

〈국내은행 기준금리 초과 예금상품〉

은행	상품명	금리
Sh수협	헤이 정기예금	3.75%
SC제일	e-그린세이브예금	3.6%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3.6%
DGB대구	IM스마트예금	3.55%
우리은행	원플러스예금	3.53

*12개월 만기 기준

/각 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가계대출은 다시 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7~6.79%를 나타내며 금리하단이 3%대로 낮아졌다. 올 초만 해도 5~8%대를 나타냈던 시중은행의 변동금리가 널달 만에 2%포인트(p) 가까이 내려간 것이다.

이처럼 금리가 건축 이전 수준에 근접하자, 신규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

5대 시중은행의 월별 신규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지난 3월에만 모두 18조 4028억원의 새로운 가계대출이 이뤄졌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9조9172억원)과 비교하면 86%나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3월과 4월 각 93%(8조6878억원→16조7628억원), 76%(7조8536억원→13조7888억원) 뛰었다.

3월과 4월의 신규 신용대출도 각각 33%(1조2294억원→1조6400억원), 30%(1조2178억원→1조5830억원) 불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새 2조3000억원 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 2021년 11월(2.9조원) 이후 가장 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은행 자체 상품만 따지면 지난 4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은행들의 예금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주문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조달비용을 낮추고 수익성 지표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예금금리가 하반기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금융권 “세번째 금리동결 유력”

한은 금통위 내주 기준금리 결정
전문가들 “고물가 여전… 인하 일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소비자물가가 둔화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에도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근원물가와 치솟는 환율 등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올해 내 기준금리 인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 근원물가, 물가안정 걸림돌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4월 기준 110.80(2020년=100)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7% 상승했다. 올해 1월 5.2%로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 각각 4.8%, 4.2%를 찍은 뒤 3%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근원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4%로 올해 1월 4.1%에서 2·3·4월 4.0%를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기

조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사실상 식료품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 하락을 제외하고는 물가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금융시장, 금리동결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팎에선 세번째 금리동결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에도 외국인이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의 경우 다른 정책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달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 인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미국간 금리는 1.75%포인트(p) 벌어졌다. 중국 리오프닝 등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호 BNP파리바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창양 “2027년 세계 점유율 50%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면 ‘산업부, 디스플레이…’서 계속

IT용 8세대 등 대량 양산기술을 고도화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신축성, 발광효율 등 O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더해, 더 밝고, 수명이 길고, 더 큰 화면 구현이 가능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로 만든다. 올 하반기엔 전 주기에 걸쳐 국내 생산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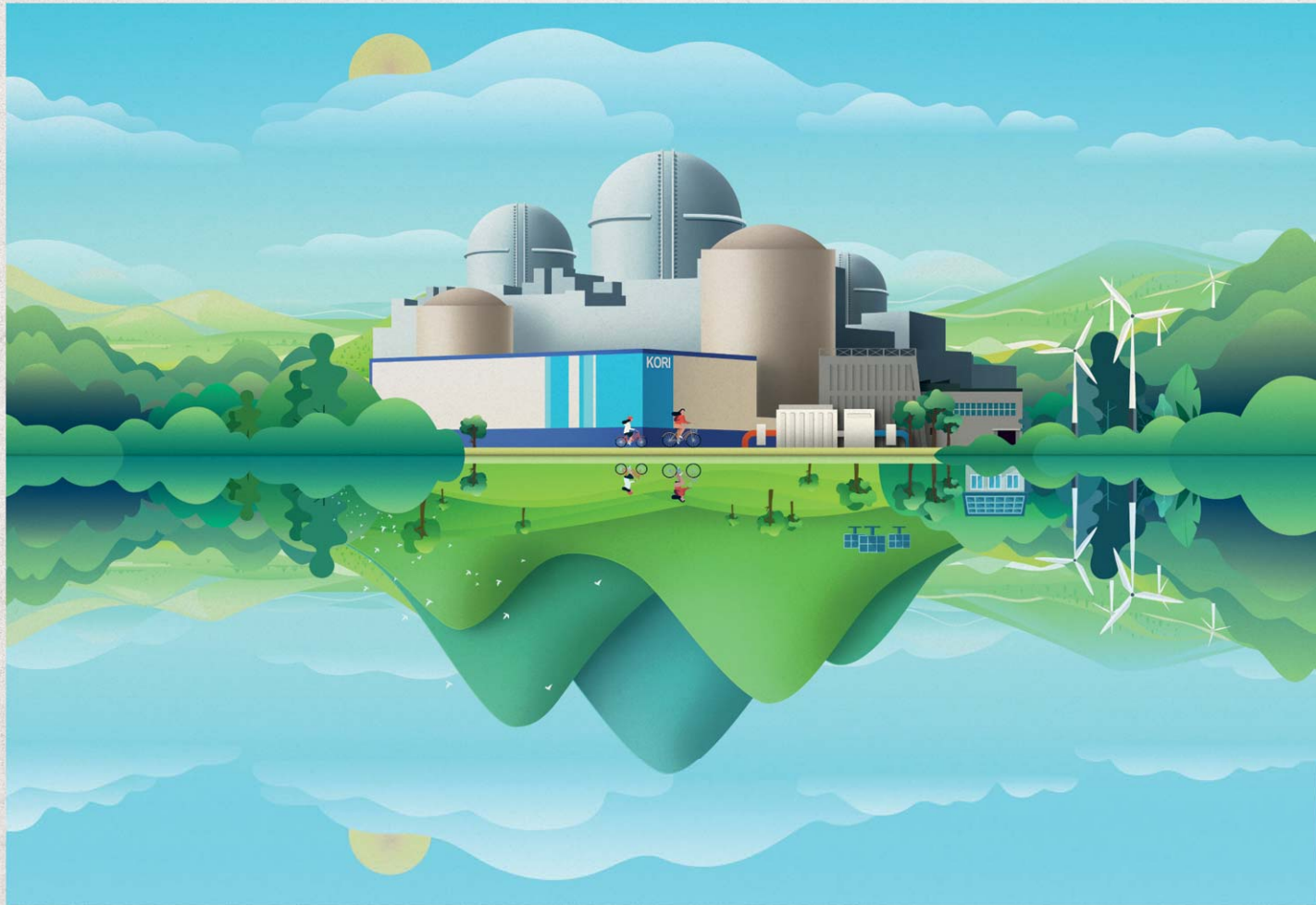
이밖에 5000억원 이상 규모 정부 연구개발을 추진, 소부장 자립화율을

80%로 끌어올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과 고투명 전극소재 등 미래 성장성이 큰 품목 등을 중심으로 총 80개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창양 장관은 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이라며 “전략에서 제시한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 등 목표를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처음부터 끝까지 All~바른 발전

친환경 발전소를 세우고
바른 에너지를 만들고
안전한 원전 해체를 통해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

지구를 살리는
모든 올바른 발전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열우려에도 개미 줍줍... “고평가 주의” vs “중장기 성장”

2차전지株, 엇갈린 투자 행보

수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 전기차 배터리 업종 관련 주들이 증시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이들 업종 주식의 급등에는 ‘밈데리(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금양의 박순혁 홍보 이사가 유튜브에 출현하면서 2차전지 관련종목을 추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 이사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LG화학·포스코퓨처엠·CNT·나노신소재·포스코홀딩스 등 8종목을 추천했는데 이들 종목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에코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종가 10만3000원에서 지난달 11일 종가 76만9000원으로 7배가량 오르면서 최



주가가 과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증권가 분석이 꾸준히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고가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해 말 종가 9만2100원에서 4월18일 종가 29만6000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증권사 과열 경고를 담은 보고서 잇달아

고공행진하던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는 지난달 한풀 꺾였다. 증권사들이 2차

전지주에 대해 과열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에코프로의 경우 여러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발간된 34건의 증권사 보고서 26개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이 2차전지주들에 의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 고점 메시지를 대거 내놓은 격이다.

특히 하나증권은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섹터 내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된 기업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라며 매도 리포트를 냈다. 또한 증권사들은 에코프로그룹에 이어 POSCO홀딩스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율리 현상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과 함께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

개인 집중 매수 ‘에코프로그룹’ 업계, 여전히 고평가 분석 내놔 여러 악재 겹치면서 주가 떨어져

◆개인투자자 2차전지 관련주 투자 집중 논란 심화

주가가 과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증권가 분석이 꾸준히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미투자자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저가매수나 몰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이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2차전지는 시세를 떠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며 조정을 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를 몰타기하거나 견디면 된다고 한 것이 이같은 순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방송에서 “과거 10년간 미국 증시를 주도한 Faangs(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를 예로 들며 “이들 주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고평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계속 오르면서 최근 10년 새 100~400배까지 올랐다”며 “지금 한국 2차 전지 주식들이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3년 정도 보유한다면 어느 가격에 사더라도 마이너스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했던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박 이사가 추천했던 포스코홀딩스를 비

롯해 에코프로,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등을 지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포스코홀딩스를 3조2868억원을 사들였으며, 에코프로를 9827억원 순매수했다. 이외에도 LG화학(3101억원), 에코프로비엠(2719억원) 등을 사들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문가들 전망도 엇갈려

업계에선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수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업종이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수혜로 2차전지 시장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들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고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3사들이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올해 말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중장기 물량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

美 개별기업 악재 등 나와 外人 투자자들 손 빠기 시작 전문가들 전망도 의견 ‘분분’

주민주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산업에 대해 “이제부터는 원가 하락이 속도와 생존을 결정할 전망”이라며 “분리막 조기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수익성은 매 분기 점진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에코프로비엠 주가의 핵심 동력은 수직계열화에 기반한 원가 경쟁력과 가시성 높은 생산능력(Cap a) 성장성”이라며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능력(Capa) 목표는 2027년 71만톤이지만 2026년에 조기 달성하고, 2030년 1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 노출도가 높아 2차전지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에코프로 그룹 등은 고평가 영역에 있어 2차전지 관련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중 세종대 교수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아직 고평가 영역에 있다”며 “특히 에코프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과도하게 높아 실적 대비 고평가된 주가가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투이미지.

(재)경주문화재단

Golden City Gyeongju

콘서트 1918 × 소란

CONCERT 1918

2023. 5. 20. (토) 20:00 경주문화관 1918 광장
구. 경주역 / 경주시 원화로 266

경주 문화관 1918

문의: 054.777.630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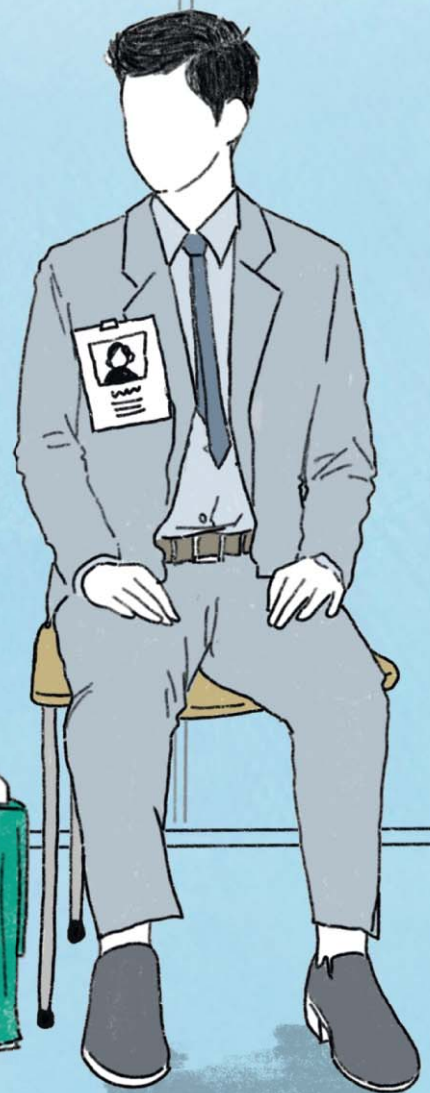
일상의 금융에서 일생의 금융으로

제2의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용기의 무게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힘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용기의
무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與野, ‘5·18’ 헌법 전문수록 공감… 시기·방식 온도차

국민의힘 “尹 대통령 공약 이행
실천적 방안 강구해 나갈 것”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촉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과정 당시부터 요구가 나온 5·18 헌법 전문 수록이 22대 총선의 화두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목숨 바쳐 투쟁한 현장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라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20대) 대선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 건을 내년 22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

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슈 띄우기에 집중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1월 10일 5·18 정신에 대해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고,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나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저

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달라고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오월 정신 ‘훼손·모독’ 행위 배격”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논평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전진 강조

여야가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맞아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이들을 배격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는 간절히 기억하는 자에 의해서 쓰인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5월의 광주를 늘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받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라며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특정세력에 이용되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폄훼되기도 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거나, 절대로 폄훼되어서도 안 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5·18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어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며칠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에 대해 검찰이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 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5·18이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제대로 아물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과연 지금의 우리가 80년 5월 그날의 광주를 살아냈다

면,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총칼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본다”며 “그렇기에 오월의 광주는 아무리 깊어도 깊을 수 없는 ‘마음의 빛’이자, 군부독재라는 짙은 어둠을 깨친 ‘역사의 빛’”이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숭고한 희생을 여전히 왜곡하고 폄훼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여당과 보수진영 인사의 5.18 망언은 위대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은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겠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

더 뿌리 깊은 민주주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5월 광주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정신이다. 그러나 오월 정신이 이 시대에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면서 “아직도 오월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정부와 여당에 준동하고 있다. 이들을 제대로 퇴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월정신에 먹칠을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압류방지통장’ 개설 범위 확대”

“전 국민 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으로 불리는 압류방지통장은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수급권자만 개설이 가능하다. 압류방지통장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된다.

민사집행법은 기초수급권자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측 입장을 파악하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전영훈 서울

금융복지센터 상담관은 “채무자는 소득활동이 필수이나, 급작스러운 예금 인출 정지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한 채 사회와 장기 단절하는 요인이 된다”며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특정대상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누구나 일반(국책)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태홍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최종심 판결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당선 무효 처리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 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가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회계책임자 A씨는 1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무죄가 유지됐으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게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KYO
WON 교원

wells

좋았어 달랐어
믿고써
웰스써

웰스써프라이즈



이찬원

교원 웰스 공식 모델 이찬원

코픽스 내리고, 대환대출 초읽기 은행 금리경쟁에 인하 체감 기대

4월 코픽스 전월비 0.12%p 하락
주담대 변동금리 6개월마다 갱신
이달·내달 재산정 차주 이자 감소

대환대출 플랫폼 오는 31일 출범
은행권 간 금리 인하경쟁 불가피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들의 금리인하 체감이 곧 시작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기록했던 코픽스 재산정시기가 내달이면 돌아오고, 이달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달보다 0.12%포인트(p) 하락했다. 금리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해 9월(3.40%)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 따라 금리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인상기로 인해 곡소리가 나오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실시했지만 기존 차주들이 체감을 하지 못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때 재산정주기가 돌아온 차주의 경우 지난해 5월(1.98%) 대비 2.36% 올라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납부했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2월 신규 코픽스(3.53%)는 지난해 11월 대비 0.81%p 하락했지만,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2.96%)과 비교하면 0.57%p가 높다.



대출금리가 하락할 전망이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이때 변동 주기가 도래한 차주는 오히려 대출금리가 올랐다.

반면 이번 4월 코픽스는 3.44%로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코픽스(3.98%)보다 낮아 만기가 도래한 기존 차주들의 경우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권에서는 이달과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차주들부터 이자체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1월 코픽스(4.34%)는 6개월 뒤인 5월 코픽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p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오는 31일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으로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53개의 금융회사와 23개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사들의 대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기 때문에 은행권 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재산정주기가 돌아와 월 납입액이 약 30만원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환대출 플랫폼까지 이용하게 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은 덜 듯 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부터 금리인하를 체감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차주들이 체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환대출플랫폼 흥행을 위해 은행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나 우대금리 정보도 제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우리금융, 부동산 PF 시장 5000억 지원

블라인드 부동산 PF론펀드 조성
정비사업 자금, LH임대주택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부동산 PF론펀드 조성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블라인드 부동산 PF론펀드란 주요 출자자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설립하고 자산운용사가 PF사업장을 선별해 대출을 집행하는 펀드를 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5000억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계열사인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등을 통해 블라인드펀드를 설정하고 우리은행 등 계열사로부터 출자

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유동성 지원은 최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신규자금지원 3000억원과 LH매입을 약정한 임대주택 사업장의 자금지원 2000억원으로 진행된다.

최근 한·미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부실 우려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PF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치매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

금융꿀팁 200선

중대질병 상태시 직접 청구 어려워

#. 부산에 사는 박씨씨는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동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마침 아버지의 보험을 통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병세가 악화된 박씨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중대질병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대질병 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18일 밝혔다.

치매보험 및 치명적질병(CI)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박씨의 경우 보험금 청구 민원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환자인 아버지의 정당한 위임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결국 박씨는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



의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박씨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미리 이용했다면 훨씬 수월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가능하고,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할 수 있다.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가입비용 없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하면 된다.

금융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려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김태오 “변화 즐기며 혁신, 생존의 필수 조건”

(DGB금융그룹 회장)

DGB금융그룹 ‘창립 12주년’
금융권 최초 챗GPT 활용 기념사
고객중심·임직원 워팀 등 강조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기업 경영의 변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변화를 즐기며 혁신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8일 DGB대구은행 제2 본점에서 열린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창립 12주년을 맞은 오늘은 지금까지 이뤄온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며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금융그룹 임직원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제고하고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ONE D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GB’ 가치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스크린골프대회 ▲iM세일즈맨 쇼 프로그램 ▲미술품 전시전 ▲iM 하이 애플리케이션 모의투자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인(人)’ 다운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엔 김태오 회장을 비롯해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김성한 DGB생명 대표, 김병희 DGB캐피탈 대표 등 10개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금융권 최초로

‘챗GPT’를 활용해 CEO 기념사를 생성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빠르고 확실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는 취지에서 특별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지속해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마인드셋 강화 ▲그룹 임직원이란 자부심으로 ‘원 팀(One Team), One DGB’ 등 두 가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고객은 DGB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모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만큼 변화된 고객의 요구에 집중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금융인의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DGB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명명해 권위를 격상시킨 ‘더 디그니티(The DIGNITY) 대상’에 전략적 ESG 활동 등으로 그룹의 위상을 제고한 김상헌 DGB금융지주 CSR추진부 부장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그룹의 지속발전과 성과 향상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25명을 포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 플랫폼 ‘브릿지’ 오픈

50년간 수집 데이터 유기적 연결
종합위험 플랫폼 확대·발전 추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위험관리 정보를 제공할 일반보험 플랫폼 브릿지(BRIDGE)를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

브릿지는 협회가 50년간 수집한 위험관리 및 사고정보 데이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손해보험회사, 특수건물 관계자 등 위험관리가 필요한 고객

들에게 제공해 일반보험의 활성화 및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발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은 ▲지식&통계 시스템 ▲위험관리 서비스 ▲보험지원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데이터 시장 등이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방재와 보험의 협업으로 탄생한 일반보험 플랫폼 BRIDGE를 국내·외 리스크 관련 정보가 집결된 종합위험 플랫폼으로 확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빅2 항공사 결합 ‘먹구름’… EU “승객·화물 경쟁 위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변호사비용 1000억 투입 총력전
EU, 대한항공에 중간 심사보고서 통보
“우려 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
美 법무부, 승인 심사 미뤄 겁악재

국내 항공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이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며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한항공 최고 경영층이 앞장서서 해외 기업 결합 심사 초기부터 각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비용으로만 1000억원 넘는 금액이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힘겨운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



김포국제공항에 주기돼 있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

/뉴시스

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발송했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다. SO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의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미국의 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다. 미국 법무부가 합병 승인 심사를 미루고 있어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당초 대한항공이 경쟁당국 요청대로 슬롯 반납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제출해 심사 통과가 유력해 보였으나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예를 발표했다. 이후 심사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일본은 경쟁 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이스라엘 지중해 ‘식수’ 만든다

아쉬도드 담수화 프로젝트
역삼투막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
2024년 플랜트 본격 가동

LG화학의 정수 기술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권 시장에서 인정받고, 대규모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18일 이스라엘 아쉬도드 담수화 프로젝트에 역삼투막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총 3만여 개의 역삼투막을 아쉬도드 담수화 플랜트에 공급할 예정이다. 역삼투막 3만여 개는 연간 1억톤(하루 33.6만톤)의 해수를 담수화해 약 11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

북아프리카 및 이스라엘이 속한 지중해 연안은 담고 건조해 담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식수 대부분을 해수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고성능 역삼투막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아쉬도드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5대 담수화 플랜트 중 하나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인 샤피르(Shapir)와 수처리 업체

GES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아쉬도드 플랜트는 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2024년 플랜트가 증설 된 뒤 본격 가동되면 이스라엘에서 LG화학의 역삼투막이 정수하는 지중해 물은 기존 필마힘, 하데라, 아쉬켈론 등의 담수화 플랜트 정수량을 합쳐 연간 총 3억톤(하루 82.5만톤)”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쓰이는 담수의 1/3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담수화 시설’은 일정한 주기로 역삼투막 필터의 교체 수요가 발생해 지속적인 매출 발생 효과가 있어 유망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LG화학 역삼투막의 수요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의 설명에 따르면 바닷물을 통과시키면 염화나트륨 분자 1만 개 중 단 11개만 남을 정도로 역삼투막은 염분 제거율(99.89%)이 높다. 특히 박막 나노 복합체(TFN, Thin Film Nanocomposite) 기술로 나노 입자를 막 표면에 얹어 염분 제거율은 유지하면서도 타사 제품보다 유량(flux)은 20% 이상 많다. 높은 압력이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

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스라엘 지역 대형 수주를 바탕으로 LG화학은 지중해 지역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LG화학은 수처리 필터 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주량을 늘려 현재 LG화학의 역삼투막으로 정수하는 물은 하루 510만톤, 연간 18억 6000만톤이다. 510만톤은 1700만명이 소비하는 물의 양과 같다. 이 중 이집트,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등에서는 전체 물 수요량의 50% 이상을 LG화학의 역삼투막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가 많다.

형훈 RO필터사업담당 상무는 “이스라엘 아쉬도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핵심 시장인 지중해 지역에서 LG화학 역삼투막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며 “지구 온난화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한국도 최근 남부 지방의 가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 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과 수처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LG전자, ‘프리즈 뉴욕’서 올레드 TV 디지털 아트 전시

LG 올레드 TV가 세계 양대 아트페어에서도

예술적인 화질을 자랑한다. LG전자는 17일(현지시간) 뉴욕 더세드에서 개막하는 ‘프리즈 뉴욕’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프리즈 아트페어’로, 스위에서 열리는 ‘아트바젤’과 함께 세계적인 행사로 평가받는다. LG전자는 전시관 8층 라운지 공간에 97형 올레드 에보를 비롯해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이젤과 포제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으로 갤러리를 조성했다. 유리 천장과 노출 콘크리트 벽에 창문처럼 올레드 TV를 세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조성했다.

/LG전자

삼성전기, 4년만에 해외 고객 초청 SCC 재개

주요 제품·기술 소개, 생산 시설 견학

삼성전기가 해외 고객들을 초청해 컴포넌트 ‘초격차’를 자랑한다.

삼성전기는 17일부터 19일까지 ‘2023 SEMCO 컴포넌트 컬리지(SCC)’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SCC는 해외 고객을 회사로 초청해 MLCC와 전자소자 등 컴포넌트 사업부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생산 시설 견학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만에 열렸다.

올해 SCC는 130여 고객사 200여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0% 늘었다. 주력 제품과 미래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 솔루션을 확인했다.

삼성전기는 MLCC 생산라인 투어를 통해 제품 이해를 돕고 기술력을 과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협력을 강화하고 매출 확대와 잠재 고객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장 라인업을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 및 정기적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전기 해외 고객 초청 행사(SCC)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류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노린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환영사에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IT용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전장용 MLCC 라인업 확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파워인덕터 등 전자소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디스플레이, XR 강화… 美 ‘이미진’ 2.9억에 인수

‘미래 먹거리’ XR 기기 시장 겨냥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XR 기기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들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미진(eMagin)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와 최종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 금액은 2억1800만달러로, 한화로는 약2900억원이다. 전날 증가에 10%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다.

이미진은 소자마다 색을 내는 RGB

OLEDoS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자체 증착 방식으로 성능을 높여 브랜드 ‘dP d’도 보유하고 있다. 하얀색 OLED에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화이트 OLED+CF 방식보다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미국 뉴욕주 호프웰 정선에 운영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만 양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진을 인수한 후에도 우선 화이트 OLED로 XR 디스플레이를 양산한 뒤, 추후 RGB OLEDoS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정된다.

이미진 앤드류 CEO는 “이번 합병은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고, 주주에 프리미엄을 제공할 것”이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는 “XR 기기는 향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진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XR 관련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

“IP 확보로 콘텐츠 중무장… 2025년까지 미디어 매출 5조”

KT그룹 미디어 데이

KT스튜디오지니·ENA 등
전년비 9%가량 괄목성장

KT그룹은 오는 2025년 콘텐츠를 포함한 미디어 매출로 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KT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18일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에서 개최한 ‘KT그룹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K-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고객 미디어 이용환경을 고급화하겠다는 포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KT그룹 콘텐츠 분야(KT스튜디오지니, ENA, 지니뮤직, 밀리의서재, 스토리위즈) 매출은 약 5000억원을 달성했다.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2022년 KT그룹 전체 미디어매출은 전년보다 9%가량 성장한 4.2조원으로 2025년까지 매출 5조원을 바라본다.



18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열린 2023 KT 그룹 미디어데이에서 KT스튜디오지니 김철연(왼쪽부터) 대표, KT Customer부문장 강국현 사장, ENA 윤용필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 사장은 “목표로 한 2025년까지 5조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콘텐츠 장르 확장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모전 등을 통해 자체 지식재산권(IP)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니뮤직, 스토리위즈 등 미디어

콘텐츠 회사를 거느린 KT스튜디오지니는 설립 2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KT스튜디오지니의 영업이익은 약 58억원을 기록했다.

김철연 KT스튜디오지니 대표는 “설립 2년 만에 흑자를달성한 것은 당시 계획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그대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KT그룹의 미디어 밸류 체

인이 제대로 작동된 근거”라며 “저희 생각보다 해외 판매 매출이 늘어나면서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국 1주년을 맞은 ENA는 스카이TV와 미디어지니 합병 이후 리브랜딩 작업을 거치며 채널 순위가 24위에서 11위로 꺾중 뛰어올랐다. 매출도 67% 성장해 약 1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윤용필 ENA 대표는 “지난해 24위에서 탑 1위 채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청률이 상승할 뿐 아니라 광고 매출까지 동반 상승세로 이어졌다”며 “글로벌 지식재산(IP) 사업자로 발돋움하고, 1조원 가치를 가진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KT스튜디오지니가 제작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및 ENA 채널의 역대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ENA는 성과를 이어가지 위한 3가지

성장전략 방향을 밝혔다. 우선 시청자 기반의 ‘이상한 즐거움’을 채널 아이덴티티로 삼고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 톱 크리에이터들과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늘려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ENA는 또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장르의 콘텐츠를 글로벌 방향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IP 사업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사장은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개발된 셋톱박스인 ‘지니TV 올인원 셋톱박스’를 공개했다.

강 사장은 “이 셋톱박스에는 삼성전자의 ‘HVR10 플러스’와 ‘돌비비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각각의 TV에서 최상의 화질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앞으로도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삼성 SDS, ‘첼로스퀘어’ 물류 디지털화 선도

(IT 물류 플랫폼)

국제 운송·물류 서비스 원스톱 진행
데이터 분석·자동화 등 새 기능 추가

“첼로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 첼로 스퀘어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라는 광장에서 첼로 역할을 맡겠다” 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의 말이다.

삼성 SDS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첼로스퀘어는 이용자들이 예약, 운송, 트래킹, 정산, 탄소 배출량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첼로스퀘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삼성SDS는 18일 잠실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객이 견적부터 예약, 운송, 트래킹, 정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첼로스퀘어 플랫폼에 ▲데이터분석 ▲자동화 ▲탄소 배출량 추적 등 새로운 기능을 소개했다.

첼로스퀘어는 특송 서비스를 비롯해 해상, 항공 등 모든 국제 운송업무와 물



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이 18일 서울 잠실 삼성SDS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첼로스퀘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류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IT 물류 플랫폼’이다. 국가의 판매규정, 인증, 국제 운송 수입 통관 등 물류에 관한 전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운송 중인 화물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 단위까지 세분화된 운송 정보를 제공해 미래 재고량 예측에 도움을 준다

삼성SDS는 이날 고객이 견적부터

예약, 운송, 트래킹, 정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첼로스퀘어 플랫폼에 ▲데이터 분석 ▲자동화 ▲탄소 배출량 추적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셀프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물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후 물류 과정에서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레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레포트는 운송중인 화물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 운송정보, 도착항구, 예측일정, 컨테이너 보관일수, 지연현황 등 운송에 관련된 전반을 실시간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은 “첼로스퀘어를 통한 사업 전환이 물류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기술들이 디지털 4.0 단계로 넘어가면서 저변이 많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SDS의 IT 기술 노하우를 통해 고객이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운송 정보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고객향의 사업으로의 전환이 목표”라고 전했다.

/사진·글=최빛나 기자 vitna@

삼성重, LNG선·컨테이너선 신제품 발표

그리스서 ‘삼성 기술 로드쇼’ 개최

삼성중공업이 주요 선박발주처인 유럽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신제품을 공식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17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삼성 기술 로드쇼’를 개최해 선박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미네르바, 가스로그, 쉘 등 주요 선주사를 비롯해 35개의 선박 관련 회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공개된 ‘3 카고 탱크’(3 Cargo Tank) LNG선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상 4개의 화물창(저장탱크)을 3개로 줄여 설계한 제품이다. LNG가 화물창에 닿는 면적을 줄여 기화율이 5% 이상 개선됐으며 필요한 장비 및 부품이 감소해 유지보수 비용도 줄인 것이 특징

이다.

삼성중공업은 멤브레인 화물창의 원천 기술사인 프랑스 GTT와 이 설계방식을 공동 개발해 영국 선급인 로이드로부터 기본 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개된 ‘에코’(eco) 컨테이너선은 운항부와 거주구를 분리해 추가 적재 공간을 확보한 신개념 컨테이너선이다. 컨테이너를 최대 8% 더 실을 수 있으며, 향후 메탄올과 암모니아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은 “기술 로드쇼는 삼성중공업의 새로운 디자인, 혁신 기술에 대한 마케팅 수단이며 고객사와 접점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주목도가 높고 호응이 좋아 향후 수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T, 도서·산간지역 공동망에 SDB 적용

(슈퍼 듀얼 밴드)

5G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장점 결합

SK텔레콤은 5G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통신에 주파수 결합 기술 슈퍼 듀얼 밴드(SDB)를 도입, 이를 도서지역 공동망에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이란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해 두 지점 간(기지국-기지국, 기지국-중계기 등)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은 주로 도서·산간 등 광케이블 매설이 어려운 지역에서 유선망을 대체하는 역할로 활용되며, 자연재해 등으로 광케이블이 유실된 상황 시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된다.

SDB 기술로 결합한 주파수는 기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에 사용되던 11㎐와 신규 도입된 80㎐ 주파수다.

기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용 주파수



SKT 직원들이 도서 지역에 설치된 5G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SKT

인 11㎐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나 5G에 맞는 대용량화가 어려웠고, 새롭게 도입된 80㎐는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장거리 통신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SKT는 각 주파수의 장점만을 모아 대용량의 데이터 장거리 전송(10km 이내)을 가능하도록 했다.

/채윤정 기자

한화시스템, ‘우주의 눈’ SAR 군집위성 개발 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679억 규모 계약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개발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679억원 규모의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 SAR(고성능 영상레이더) 검증 위성 1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은 SAR 검증 위성을 개발하고 입증한 후 양산을 통해 SAR 군집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실제 ‘우주궤도 시험’을 실시해 한반도 전역과 주변 해역의 준실시간 감시·관측을 위한 소형·경량·고성능 SAR 군집위성을 개발해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SAR 군집위성 개발이 완료되면 한반도 위기징후와 재난위험을 빈틈없이 탐지하는 ‘우주의 눈’ 역할을 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각 위성 구성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공학모델(EM) ▲각 위성 구성품의 발사환경 및 우주환경 인증을 위한 비행모델(QM) ▲각 구성품 간 연동

시 기능 검증을 위한 전기적 시험장치(ETB) ▲위성체 구조물 내에서 각 구성품 기능 검증을 위한 열구조 모델(STM) ▲실제 우주로 발사할 초소형 SAR 위성의 발사용 모델(FM)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EO)·적외선(IR) 및 SAR 탑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현재 군사용 정찰위성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SAR센서’와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개발하며 독자적인 우주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 Green
Festa Festa

www.veganfesta.com

비건페스타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헬스케어
생활용품&반려동물용품 | 친환경 제품

2023.10.13(금)~15(일)
aT Center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Vegenomics Fair-Vegan Festa

1분기 이어 2분기 ‘깜짝실적’ 기대… 현대차株, 목표가 상승중

올 자동차지수 30.62% 상승
외국인 올 1조2018억 어치 사들여
현대차 주가 올해만 24% 급상승
목표주가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다음 타자로 자동차주가 부상하면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현대차에 대한 주목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자동차지수는 올해 30.62% 상승하면서 KRX 업종별 지수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대장주’인 현대차는 올해 들어서만 24% 상승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두드러지며 올해만 1조2018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2조8580억 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가량의 영업 이익이 전망됐지만 실질적으로 3조59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실적호조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누적된 대기 수요가 여전하고 재고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도 생산과 판매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현 주가는 최근 실적 호조세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대차의 하반기 수익성은 상반기와 비교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현대차의 저평가를 언급했다.

남주신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쌓인 대기수요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며, 법인용 차량 판매 분까지 고려한다면 2분기는 물론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목표주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의 현 재고는 1.7개월 수준으로 적정 재고(2.6개월)와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생산 부분에서는 5~6월 사업계획 달성 가능성이 100% 확실해지면서 당분간 생산과 판매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현대차의 목표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NH투자증권 28만 원, DB금융투자 27만 원 등으로 목표가를 올렸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자동차주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 사상 첫 3조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하면서 기아가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견조한 업황과 2분기 계절성을 고려 시, 초과 달성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수익성 둔화 신호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실적 펀더멘털(기초체력) 기반의 견조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완성차 업계 매출·영업이익 호조에 따라 관련 부품주들도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중소형 부품업체 45개 사의 1분기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영업이익은 689.6%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LH,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저출생 극복 일환 의정부서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고산지구 주민들을 만나 지역 돌봄시설 관련 불편한 점,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정부시와 ‘의정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아이돌봄 관련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모으고 어린이전용 문화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갖춰 수준 높은 윈스탑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거점공간이다.

시범사업은 지구내 즉시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고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실시된다. 특히 의정부 고산지구에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원거리 출퇴근·돌봄시설 부족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LH는 토지주택연구원(LHRI)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보육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식

당, 키즈공방 등을 제안했다.

LH는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착공해 오는 2026년에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LH가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CE 싱가포르리츠 ETF’ 수익률 상승

한국투자, 올 수익률 10.85% 성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싱가포르리츠 ETF’가 국내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18일 전했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 ETF는 총 12개(ETF체크 기준)이다.

이 중 ACE 싱가포르리츠 ETF는 연초 이후 수익률 10.85%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 중이다. 최근 1년과 3년 수익률 역시 각각 2.96%(1위)와 24.66%(2위)로 우수하다(17일 한국거래소 기준).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은 31.58%로 집계됐다.

ACE 싱가포르리츠 ETF는 기초지수인 ‘Morningstar Singapore REIT Yield Focus Index’의 수익률을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중 최근 12개월 기준 배당수준이 높고, 재무적 안정성 수준을 충족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수 산출과 발표는 글로벌 독립 투자리서치 기관인 모닝스타가 맡고 있다.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것 또한 ACE 싱가포르리츠 ETF의 특징이다. 4월 말 기준 기초지수 구성종목인 싱가포르 리츠의 최근 3년(2020~2022) 평균 배당금은 4.66% 수준이다. 미국·일본·한국 리츠 ETF 대비 좋은 배경으로는 싱가포르 리츠 시장만의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싱가포르 리츠 시장은 높은 정부 관계기관 스폰서 리츠 비중 등 덕분에 경기 민감도가 비교적 낮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싱가포르 리츠가 글로벌 리츠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해왔다”며 “특히 ACE 싱가포르리츠 ETF는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기 둔화와 국제 금리 피크 아웃 기대가 맞물린 현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재투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투 ACE 싱가포르리츠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美 배당 다우존스 순자산 1600억원 기록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가 상장 6개월 만에 순자산 1600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기초지수인 Dow Jones US Dividend 100 기준으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3% 중반의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4%의 배당금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인버스와 채권형 ETF 위주로 유입된 가운데에서도 주식형 ETF인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에 대한 자금 유입은 독보적이었다”고 말했다.

오형석 신한자산운용 ETF운용팀 매니저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운용능력에 따라 배당 및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최우진 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 총괄 대표(왼쪽)와 대우건설 백정환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식에 서명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해상풍력 시너지 극대화 나서

코리오제너레이션과 업무협약

대우건설은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 회사인 코리오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에서 개발 중인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아태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코리오는 사업개발부터 투자와 사업관리를, 대우건설은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 설계·구매·시공(EPC)역할로 참여하게 된다.

백정환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코리오제너레이션과의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탄소중립의 새로운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한국투자 ‘나스닥 토탈뷰’ 무료 제공

오전 10시~오후 5시 거래시간 확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미국주식 주간거래 시간을 확대하고, 나스닥 호가 정보 서비스 ‘나스닥 토탈뷰(Nasdaq Totalview)’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거래 시간은 서머타임 적용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간거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프리마켓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 정규장은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 애프터마켓은 오전 5시

부터 오전 9시까지를 포함해 하루 총 23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나스닥 토탈뷰는 개별 종목의 호가와 잔량을 20호가까지 보여 주는 서비스다. 기존에 제공되는 한정된 정보에 비해 가격과 수급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투증권은 투자자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최상의 투자환경을 위해 무료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투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며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

수출 기다리는 차량 ‘빠곡’… 컨테이너에 車 3대 묘안 ‘숨통’

르포

르노자동차코리아 부산공장

XM3 E-테크 하이브리드 본격 수출
차세대 모델 ‘오로라’ 성장 포부
차량품질·공정관리 고점 획득도
비용 최소화해 경쟁력 확보

2년만에 찾은 르노자동차코리아 부산 공장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으로 가득 찼고, 공장에서는 끝없이 새차가 쏟아져 나왔다.

르노코리아가 또다시 역경을 딛고 부활을 꿈꾼다. 최근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수출을 본격화하며 정상화에 성공, 뜻밖의 물류난에도 컨테이너에 3대를 실어 보내는 묘안을 개발하면서 숨통을 뚫었다. 세계 최고 수준 품질에 혼류 생산을 비롯한 빠른 배송을 노력으로 효율성까지 최적화, 차세대 모델 ‘오로라’로 성장 궤도에 안착한다는 포부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여러 악재를 겪었다. 신차 부재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판매도 주춤했을뿐 아니라, 노사간 잡음까지 겪었다.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다. 그나마



컨테이너에 실리는 아르카나. 3대를 지그재그로 싣는 방법으로 활용을 극대화했다.

XM3 E-테크 하이브리드를 새로 양산하면서 숨통을 뚫지만, 해운 업계 이슈로 수출과 수익성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답은 기본이었다. 품질을 개선하고 원가를 최소화하는 것.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르노닛산얼라이언스에서 진행하는 공장 품질관리 종합평가(PHC)에서 차량품질과 공정관리에서 각각 5.0만점 4.7과 4.4점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00대당 부적합 건수인 ‘DPHU’도 2021년 56에서 지난해 39로 대폭 줄이며 르노그룹 2위, 인도된 차량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SAVES’에서는 르노그룹 1위를 차지했다.

르노코리아 이해진 제조회사장은 부

산공장 품질력 비결로 사람을 꼽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품질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앞으로도 그룹에서 최고 품질력을 이어가겠다고 자신했다. 외국어 능력과 다기능 작업 등 새로운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자랑했다.

또다른 장점은 원가다. 차체 용접과 도장 공정을 100% 자동화, 그러면서도 AGV를 비롯한 디지털 물류 시스템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차량을 한 라인에서 만드는 혼류 생산에 특화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며 르노그룹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장 노후화에 대한 우려에도 개의치 않았다. 이 본부장은 “AGV가 낡아도 모터 등 필요한

부품만 교체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는 능력도 비용을 줄이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영과도 연결된다. 르노코리아는 자동화와 함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공장에 자동화 라인 공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등해 작은 비용까지 줄이고 있었다. 차량을 세워놓는 선적장 천장은 태양광 발전 패널로 가득 채운 상태, 2023년 한국전력 공급 계약을 끝내면 공장 운영 에너지 중 30%를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작스러웠던 물류 대란에도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했다. 자동차 전용 선박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치솟은 상황, 일반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하나에 차량 2대를 넣을 수 있지만, 프랑스 계열 운송 기업 CEVA와 함께 3대를 실어 내릴 수 있게 됐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컨테이너 한 대에 아르카나 두대를 실으면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았다”며 “사다리를 이용해 3대를 엮갈리게 컨테이너에 선적하고, 현지에서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코리아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선적 지역을 더 늘리면서 수출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선박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도 차를 내릴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르노코리아는 앞으로 신차 양산을 본격화하며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포부다. 내년부터 차세대 모델 ‘오로라’와 함께 조만간 중국 지리차와 협업을 통한 불보 CMA 플랫폼 모델까지 양산을 준비 중이다. 이미 부산공장 곳곳에는 ‘오로라 성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조만간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라인은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매철 후부터 부산 공장은 신차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최소 1년여간 보안 프로그램을 작동하며 외부 공개를 강력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오로라가 성공적으로 양산되고 수출을 본격화해 더 새로워진 공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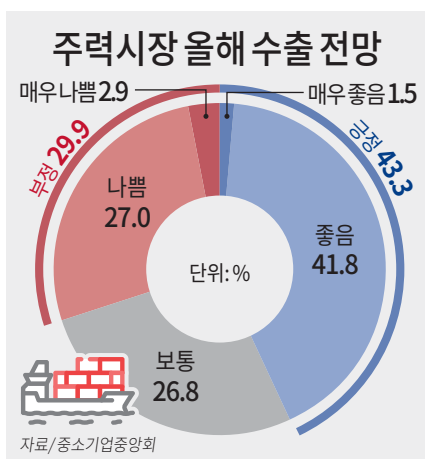
中企, 올 수출 전망… 美·日 ‘긍정적’, 中 ‘부정적’

중기중앙회, 306개사 대상 조사
‘긍정’ 43.3% vs ‘부정’ 29.9%
주요 수출 전략 ‘신규바이어 발굴’

수출 중소기업들은 올해 수출 전망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전망이 밝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요 10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내놓은 ‘2023년 1분기(1~3월) 중소기업 수출실태 및 전망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연방, 인도,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다.

이들 나라 가운데 미국을 주력 시장



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2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19.6%), 중국(18.0%), 베트남(12.4%), 러시아(7.8%)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출 전망

이 ‘긍정’ (43.3%)이라는 응답이 ‘부정’ (29.9%)보다 많았다.

특히 3대 주요 수출국 중 미국과 일본에서의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3.4%, 44.6%였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30.9%, 29.5%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 전망은 ‘부정’ (38.4%)이 ‘긍정’ (35.4%)보다 다소 높았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올해 주력 시장에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수출전략으로는 ▲신규바이어 발굴(55.0%) ▲품질경쟁력 제고(20.8%) ▲가격경쟁력 제고(1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요 10개국에서의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40.1%)가 ‘증가’ (31.7%)보다 많았다. 응답 기업의 28.3%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수출실적 감소 원인으로는 ‘수출국의 경기침체’가 60.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뒤를 이어 ▲환율 변동(16.5%) ▲수출국 내수화(수입대체)에 따른 수요 감소(15.3%) ▲원자재 수급난·가격상승에 따른 생산 차질(11.7%) ▲타기업 품질·가격 경쟁력 상승(9.7%) 등의 순이었다. 외국의 경쟁사 대비 제품 경쟁력 수준에 대해선 품질경쟁력이 외국 대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4.8%,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보는 응답은 52.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은 주로 ‘5개 미만’ (41.8%) 국가에 수출하고 있었다.

/김승호 기자 bada@

교원그룹

교육 전문 플랫폼 ‘메타버스’ 활성화

교원그룹이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교원그룹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전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확대 ▲메타버스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나간다.

한화시스템과 다양한 분야 협업
에듀테크 콘텐츠 ‘위캔버스’ 선풍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플랫폼

특히, 교원그룹은 업무협약을 통해 한화시스템과 EBS가 공동개발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위캔버스(WeCanVerse)’에 교원그룹의 다양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위캔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학생 개별 난이도에 맞춘 AI 학습 등 교원그룹의 차별화된 에듀테크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위캔버스(WeCanVerse)’는 한화시스템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개발한 메타버스 기반의 공공교육 플랫폼이다.

초·중·고 공교육 교과과정을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첫 번째 협력 과제로 교원그룹의 스마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도요새잉글리시’를 EBS 위캔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하기 위한 기술검증(PoC)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영홈쇼핑, ‘동행축제’ 판매액 330억 달성

가장 많은 판매 제품 ‘도미솔 김치’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에 참여해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소비 촉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일부터 열린 ‘동행축제’에 참여해 보름만인 15일 기준으로 판매액 330억원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도미솔 김치’다. 주문수량 1만8000세트, 8억8000만원 가량을 판매했다. ‘농협 세척사과’, ‘모나리자 화장지’도 각각 5

억5000만원, 3억70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생활필수품과 먹거리가 판매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공영라방이 동행축제를 맞아 선보인 상품들도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9일 대전에서 열린 동행축제 개막식 현장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상품 ‘흑보리집’과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만든 ‘프리즘TV’ 라방은 1억6000만원의 주문액을 기록했다.

특히 프리즘TV 공영라방에서는 중소기업 최초 100형 TV를 사전 공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주거빈곤가정 아동 돕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SH공사
‘사이주택 시즌3’ 업무협약

홈쇼핑이 주거빈곤 가정 아동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홈쇼핑은 위기 상황에 처한 주거빈곤가정에 긴급임시주택이나 주거환경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사이주택’이란 경제적 문제로 숙박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철거명령으

로 퇴거 위기에 처한 주거빈곤가정 중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긴급임시주택 또는 주거환경 개보수를 지원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홈쇼핑은 안전한 긴급임시주택 형성에 필요한 물품 및 주거상항비 등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하고, SH공사는 긴급임시주택 운영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유상 제공한다.

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농가, 관광·연금으로 먹고 산다 농업소득 전년대비 26.8% 급감

농식품부·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비농업 소득 비중 80% 달해
쌀 재배면적·생산량·가격↓요인

농업을 영위하는 국내 농가의 소득이 본업인 농업소득보다는 농촌관광이나 국민연금같은 농업외 소득·이전소득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 평균 4615만원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도 1296만원 대비 26.8% 급감했다. 반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와 농촌관광 등 겸업 및 사업의 소득으로 창출된 농업외 소득은 평균 1920만원으로 전년도 1788만원 보다 7.4% 늘었다. 또 농업인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등에 따른 이전소득은 1525만원으로 전년도 1481만원보다 2.9% 늘었다.

농가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농업소득은 전년도 27.1%에서 지난해에는 20.6%로 6.5%포인트(p) 줄어든 반면 농업외소득은 37.4%에서 41.6%로 4.2%p, 이전소득은 31.0%에서 33.0%로 2.0%p 각각 증가했다.



단성면 농가 벼 수확 모습.

/산청군

농가 소득의 주업인 농업소득 비중은 5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반면 관광수입, 농축산물 등을 가공 생산해 판매하는 수입 등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 소득이 농가의 주 소득원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농업소득에서 미국수입의 경우 쌀재배면적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해 생산량이 3.0% 감소했고 산지쌀값이 20kg 당 2021년 5만4888원에서 4만6592원으로 하락하며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축산수입도 한우, 계란 등의 공급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며 전년대비 15.3% 줄었고 채소수입도 6.7% 감소했다. 반면 경영비는 지난해 국제비

료가격 및 사료비 상승에 더해 에너지가격, 환율상승이 겹치며 전년대비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각각 급증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본직불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지역·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농업 분야 내 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aT,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선정

3년간 화훼문화 진흥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하 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담기관은 앞으로 2025년까지 3년간 ① 화훼생활화 및 화훼이용 촉진지원, ②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

램의 보급지원, ③ 화훼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보급지원, ④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학계 유관기관 언론사 등 화훼, 홍보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가 운영적 정성, 운영능력, 업무수행계획 등을 향

목을 서면평가 및 종합평가해 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를 선정했다.

이은석 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장은 지난 "1991년 양재 화훼공판장 개장 이래 32년간 화훼류 유통 개선, 소비 촉진, 화훼문화 활성화 등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경험을 토대로, 향후 화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선진 화훼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공정위, 스위스 UBS-CS 기업결합 승인

합산 점유율·시장 집중도 낮아
가격 인상·경쟁사 봉쇄 가능성 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 최대투자은행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UBS는 지난 4월 6일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스위스에 설립돼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합병으로, CS의 벤처투자 손실과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를 비롯해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가 약 1090억 스위스프랑(154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한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는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고,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UBS가 51%, 하나은행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양사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 ▲M&A자문 ▲채권

발행 주선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4개 세부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결합 유형별로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 ‘녹색산업’, 이집트 진출 단순매립서 재활용 첫 사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

韓 새마을 운동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본뵈었다는 이집트의 환경프로젝트 준공식이 17일(현지시간) NAC(New Administrative Capital)로 명명된 이 나라의 신행정수도에서 개최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성사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이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단순 매립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연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이집트 환경정책의 첫 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우리) 중소기업 제이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에 이미 사업을 완공했지만 전기, 수도 등 제반시설 부족 탓으로 준공식이 차일피일 미뤄진 바 있다.

올해 2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이 실무진을 파견해 제반시설 지원을 협의

했고,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삼압텔 가니 압둘라지즈 안나 이집트 지역발부 장관 간의 최종 협의로 준공식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 장관은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통해 협력국의 환경정책을 고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난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나 장관은 "아랍어로 '하야카리마(인간다운 삶)'라는 이번 사업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며 "한국과 이집트 간 민간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 장관은 준공식 참석하기에 앞서 17일 오전 이집트 카이로의 모카탐(Mokattam)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여 이집트 카이로 현지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시찰하고 순환경제 완성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에너지화 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아스민 포아드 이집트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강경성 “신한울 3·4호기 빠른 진행 바라”

(산업부 2차관)

취임 후 첫 현장행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이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2차관에 강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 2차관은 이날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강 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돼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



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지난 3월 두산에너지 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5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해 올해 7월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한국형 원전인 신한울압력수로(APR1400) 형식으로 1400메가와트(MW)급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준공 예정일은 3호기가 2032년, 4호기는 2033년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기부,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

한진·전국상인연합회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진, 전국상인연합회가 손잡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중기부는 18일 오후 경기 부천 역곡상상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노삼석 한진 대표, 정동식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약을 맺고 온라인 택배를 활용해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기로 했다.

한진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택배 시스템(디지털 이지오더)을 전통시장 상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등 상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운영하는 계약 택배 제도를 물량에 상관없이 도입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류비용을 줄여 줄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정학 / 오만석

10th
anniversary

M U S I C A L

고향로



2023. 07. 12 (수) - 2023. 09. 03 (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유준상 이견명 오만석 엄기준 오종혁 지창욱 김건우 영재 김지현 최서연 제이민
서현철 이정열 고창석 이진희 김보정 김석영 최지호 김산호 박정표 정순원 손우민 곽나운 이정화 홍유정 이자영 외

주최 SBS insight 제작 insight GENIE MUSIC 협찬 KDB산업은행 홍보 OPENREVIEW 문의 02-541-7152

스쿨존 단속강화에도 한 달간 법규 위반 5만여 건 넘어

교육부,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결과
제한속도 등 교통법 미이행 많아
주변 시설 중 위반업소 3234건
부과 과태료·벌칙금 71억 달해

개학 후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적치물, 불법주정차·과속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5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교통안전·유해환경 등 정부가 6개 분야로 부과한 과태료·벌칙금은 71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한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점검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추모 물품들이 놓여 있다. /뉴스시스

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78개 기관이 참여했다.

◆횡단보도·과속 단속 카메라 없는 곳도… 당국 “해당 지자체에 개선 독려”

점검 결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했다. 이에 부과된 과태

료·벌칙금은 53억5000만원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여전히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와 주·정차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어린이보호구역 29곳은 원인과 보행동선, 과속단속장비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그 결과 보행로나 횡단보도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곳 173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200건의 개선 사항을 찾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주변 1.5만개 유해업소서 위반 사항 3천여건 적발

관계 당국은 학교 주변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 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했다.

유·무인 점포 40곳에서 KC인증이 없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제품 96종을 적발해 판매 금지 조치했고, 불

응한 8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하는 사례 208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6800만원을 물렸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40만여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점검(8107개소)에서는 시설 노후, 기준 부적합 등 위반 행위 총 192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3건)하거나 개선 명령(550건), 시설보수(323) 조치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건국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

과기부, 6년간 55억 지원
ICT 유망기술 석·박사 인재 양성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건국대는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연간 10억원씩 6년간 55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건국대는 일반대학원에 메타버스 융합학과를 개설하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예술·디자인, 컴퓨터공학을 아우르는 다학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 연계 사업을 통해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입학생은 전원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메타버스 공간과 경험, 지능 등을



건국대 전경. /건국대

융합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주제는 학생이 발굴해 지도교수와 구체화하고 이를 연구진 및 기업과 매칭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주도 창의 자율 연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인턴십-취업 연계 마이크로디그리로 구성해 메타버스, 확장현실(XR) 영상 및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공연 등 전문 기업에서의 실습

과 인턴십으로 실제 산업 현장도 경험할 수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대학과 협력해 메타버스 리빙랩도 진행한다.

이번 사업 연구책임자인 김형석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건국대는 가상·증강현실과 콘텐츠, 공학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메타버스 기반 창업과 산업 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업과의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가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선정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ICT 유망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현진 기자

이경 교수,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동국대 혁신 신약개발 전문가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이경 약학대학 교수(사진)가 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김영준)가 선정하고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대표이사 김창훈)이 후원하는 ‘2023년도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2023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이경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의약화학 기반의 신약개발 중개연구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경 교수는 혁신신약개발 전문가로 암 및 염증 질환을 조절하는 글로벌 수준의 화합물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개방형 중개연구를 통한 산학연 융합연구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암 특이적 저산소미세환경에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물질 LW6의 타겟이 MDH2 (malate dehydrogenase 2)라는 것을 화학적 도구를 활용해 최초로 규명했다. 다학제간 중개연구를 통해 ID F-774와 같은 임상 후보물질 및 수종의 항암 임상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개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우수한 여성 과학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수상자를 선정하고 마크로젠이 후원해 상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개교 21주년 기념식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17일 개교 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원광학원 홍산오도철 상임이사, 김윤철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 참석했으며 ▲개회 ▲연공상 수여 ▲유공 교원 표창 ▲공로상 수여 ▲우수 교직원 표창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올해 20년 연공상 수상자로 콘텐츠개발팀 이제민 직원, 10년 연공상 수상자로 신이철 경찰학과 교수, 명예일 한방건강약선학과 교수를 선정해 시상했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6월 1일부터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약 2000팀 캠퍼스타운 창업社 배출

연 매출·투자유치액 각 1000억 달해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약 2000팀을 육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년에게 일자리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39개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했으며, 작년 말 기준 누적 1963팀의 창업기업을 배출했다. 지난해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의 연매출액과 투자유치액은 각 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광운대 캠퍼스타운에서 각 대학의 강점 분야 특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화여대는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시장조사·마케팅을 도울 예정이다. 한양대는 오픈이노베이션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해 소셜벤처 창업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대학 내 연구실·실험실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교원과 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광운대는 로봇, 프롭테크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창업기업을 서포트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캠퍼스타운 출신의 유니콘 기업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Top5 창업 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 창업 생태계에서 캠퍼스타운이 밑거름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

국민대, 창업 기업 발굴·연구 활성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맞손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최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학내 본부관 203호에서 초기 우수창업 기업 발굴 및 기업가정신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 ▲기업가정신에 관한 공동 연구 ▲창업교육(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발 등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청년층의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 기업가정신 함양을 돕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공유·실현할 수 있도록 확산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기관이다.

‘벤처 1세대’인 남민우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 이후 청년들이 가져야 할 기업가정신에 관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남민우 이사장은 “국민대와 이번 MOU를 계기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홍재 총장도 “이번 MOU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김영수 사무총장, 최선락 팀장과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어린이 해열제서 또 문제… 콜대원키즈펜시럽 ‘판매중지’

식약처, 투명·불투명액 ‘상분리’
파인큐아세트펜시럽도 회수 권고
대원제약 제제 개선때까지 조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이어 ‘콜대원키즈펜시럽’까지 제조·판매가 중지됐다. 어린이 해열제 대표 제품들에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및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분리 현상은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뜻한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콜대원키즈펜시럽

상분리 현상이 확인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에 대한 점검 결과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제조공정·품질 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 자문 결과, 현탁제의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적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제품은 제제 개선 등을 거쳐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대원제약에서 제제 개선 등의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상분리 상태의 제품을 흔들지 않고 소분해 복용하는 경우 정량을 복용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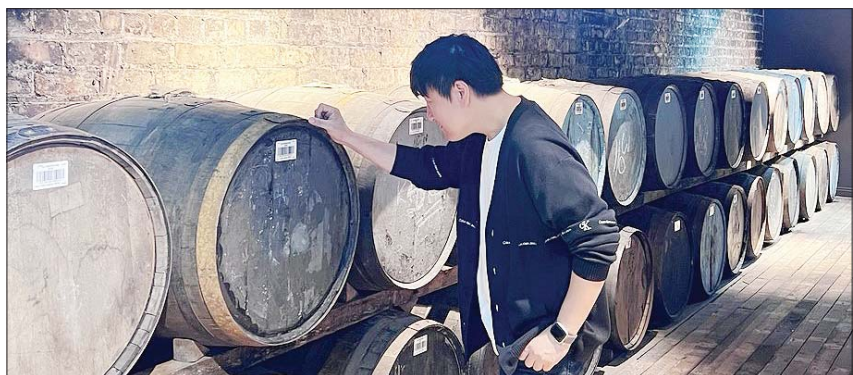
는 소비자 불편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제제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며 “연구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고 정상적인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에는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잠정 중지된 바 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 일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넘는 진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해열제에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며 소비자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챔프를 환불하면서 콜대원을 사왔는데 이제 어떤 걸로 바꿔야 할지 걱정이 크다”며 “시럽 제제는 불안해서, 먹어기는 좀 힘들어도 가루약 제제로 선택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스톡홀름 현지에서 캐스크를 살펴보고 있는 김웅 롯데마트 주류팀장.

/롯데쇼핑

롯데마트, 한정판 위스키 7종 판매

롯데온 구입 후 매장 수령방식

롯데마트가 18일부터 31일까지 롯데온에서 스카치 위스키 ‘올드파티클러 글레고인 11년’을 포함한 한정판 위스키 7종을 판매한다. 한정판 위스키는 롯데마트몰 전용 상품이며, 롯데온에서 구입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한 ‘올드파티클러 글레고인 11년’은 독립병입 위스키다. 독립병입 위스키란 독립병입자가 증류소에서 원액이 담긴 오크통을 구입, 독자적으로 숙성시키고 병입해 자신들의 브랜드로 출시하는 위스키다. 증류소에서 위스키를 병입하는 맥켈란, 발베니 등 공식 위스키와 비교해 다양하고 독특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색있는 위스키를 소개하기 위해 주류팀 MD가 직접 세계 최대 위스키 생산국인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증류소와 독립병입자를 방문해 테이스팅한 후 선택했다.

올드파티클러 글레고인 11년은 피트(위스키 재료인 보리를 말릴 때 사용하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순수한 몰트 위스키 맛이 강점인 글레고인 증류소의 원액에 ‘더글라스 랭’의 숙성 노하우가 더해져 탄생한 싱글캐스크 싱글몰트 위스키다. 이번 캐스크에서 10년, 세리 캐스크에서 1년 등 총 11년 숙성되어 열대 과일과 산뜻함과 견과류의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CJ인베스트먼트, 스타트업 지원 나서

PNP와 7개 기업 최종 선정

CJ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J인베스트먼트가 그룹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지원한다.

CJ인베스트먼트는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PNP)와 함께 ‘CJ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CJ인베스트먼트

및 주요 계열사 등에서 투자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했으며, PNP 글로벌 투자 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해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시드단계 이상이며 ▲차별적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진출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7개 스타트업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맥주 1위 등극 12년만에 마트 점유율 탈환

지난달 ‘켈리’ 출시 후 매출점유율
하이트진로 48.5%, 오비맥주 44%

점유율 상승분, 오비 하락분과 비슷
테라 하락 없이 켈리 매출만 순증

하이트진로의 맥주 브랜드 ‘켈리’와 ‘테라’가 일부 유통 채널에서 오비맥주의 ‘카스’와 ‘한맥’ 등을 제치고 매출 점유율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A대형마트에 따르면 켈리 출시 첫 달인 4월 국산 맥주 매출 점유율은 ▲하이트진로 48.5% ▲오비맥주 44%로 12년 만에 1위가 바뀌었다.

B대형마트에서는 4월 ▲하이트진로 44% ▲오비맥주 44% ▲롯데칠성음료 12%로 선두업체 두 곳의 점유율이 같았다. 그러나 켈리 마케팅이 본격화된 5월에는 ▲하이트진로 48% ▲오비맥주 42%로 매출 역전이 발생했다.

하이트진로의 점유율 상승분 대부분이 오비맥주의 점유율 하락분과 비

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트진로 측은 “가정시장 판매처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한 제품이라는 점과, 기존 맥주 ‘테라’의 점유율 하락없이 켈리의 매출이 순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채널 입점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점유율 상승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맥주 1위’ 카스는 여전히 견재하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 1분기 편의점, 마트 등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오비맥주는 점유율 54.2%를 달성했다. 그중 ‘카스’의 경우 점유율 42.8%에 달한다. 아울러 오비맥주는 2021년 출시한 ‘한맥’을 새롭게 리뉴얼하며 점유율 보태기에 나섰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여름 맥주 시장 점유율을 놓고 회사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하이트진로가 선보인 ‘켈리’의 인기가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홈쇼핑, 토크쇼형 라방 ‘지우네’ 론칭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생방송

롯데홈쇼핑이 오는 23일 토크쇼 형식의 모바일 생방송 ‘지우네’를 론칭하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방송한다. 호스트는 팔로어 1100만 명의 인플루언서 ‘미지우’다.

‘지우네’는 엘라이브 최초로 인플루언서가 고정 출연하는 토크쇼 방송이다. 정식 프로그램 명은 ‘지금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로 매주 새로운 주제를 정해 고객과 대화한다.

첫 방송에서는 여행을 주제로 미지

우가 MBTI별 여행지 추천, 사연 읽기 등 토크쇼를 진행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캐리어’, ‘A.H.C 선패치’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개하며, 미지우의 자체 브랜드 ‘편더멘탈’ 선글라스도 최대 65% 할인 판매한다.

미지우(본명 정지우)는 국내 SNS 인플루언서 중 최초로 팔로어 1000만 명을 달성했다. ‘미지우(패션)’, ‘니프니프(뷰티)’, ‘편더멘탈(잡화)’ 등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일리운

세라마이드 더마 6.0 클렌징 워터 폼 출시

아모레퍼시픽 저자극 더마 보습 브랜드 일리운이 민감 피부를 위한 ‘세라마이드 더마 6.0 클렌징 워터 폼’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한번의 클렌징만으로 파운데이션, 쿠션, 선크림 등 베이스 메이크업의 잔여물 없이 확실하게 세정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2차 세안을 하지 않아도 말끔한 클렌징이 가능해 과도한 세정이 부담스러운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성분으로 구성해 한국비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았으며, 민감 피부를 위한 7가지 피부 적합 테스트를 완료해 여드름 피부도 사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이화의료원-시지바이오

임상술기 교육 업무협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15일 이대서울병원 이화의료아카데미에서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와 임상술기 교육 및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첨단 바이오 재생기술(뼈, 상처치료) 및 미용 성형과 관련한 차별화된 임상술기 교육 ▲안전한 시술 및 수술 제공을 목표로 한 해부학 강의 및 실습, 가상현실 해부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이대서울병원 내 시지바이오 제품 교육 장소 사용 협력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정보 및 기술개발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세경 기자

동서식품

성수동에 오레오 팝업 오픈

동서식품은 ‘오레오 데이’(5월 25일)를 맞아 18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한 달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레오(Oreo)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1912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쿠키인 오레오 탄생 111주년과 세계 1위 비스킷 달성(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 기준)을 기념하여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레오의 111번째 생일 파티’를 콘셉트로 공간마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팝업스토어는 ▲웰컴존 ▲커넥트존 ▲플레이존 등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엔솔, ‘발명왕·출원왕’ 선발... “연구개발 활동 적극 지원”

혁신 성과 낸 임직원 12명 포상
이택수, 장성한 각각 금상 수상

LG에너지솔루션이 ‘발명왕’과 ‘출원왕’을 뽑고 포상을 진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매년 특허 활동에 대한 포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5월 발명의 날을 맞아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2023 발명왕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처음 도입한 발명왕 포상 제도는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적극 장려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부문의 압도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향력 있는 혁신적 특허를 출원한 구성원에게는 ‘발명왕’



LG에너지솔루션이 5월 발명의 날을 맞아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2023 발명왕 시상식을 개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을, 다수의 핵심 특허를 출원한 ‘출원왕’을 선발해 포상했다. 먼저 발명왕은 최근 2년내 등록된 특허 중 대내외 전문가 집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배터리 사업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6명을 발명왕으로 선정했다.

금상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양산에 적용된 전극공정 더블 레이어 코팅 기술을 발명한 전극기술센터 이

택수 팀장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p자동차전지 파우치 균열 불량률을 감소시킨 파우치 제작 기술(은상, 박성철 책임연구원) p고속 충전 을 위한 실리콘계 음극 활물질 적용 기술(은상, 이수민 책임연구원) p고전압 전지용 신규 전해질 첨가제(동상, 이정민 책임연구원) p배터리 수명회화 진단 기술(동상, 배운정 연구위원) pCN

T(탄소나노튜브) 도전재 분산성 향상 기술(동상, 김예린 책임연구원) 등도 발명왕을 수상했다.

출원왕은 모듈 및 팩 안전성 개선 분야에서 총 17개의 핵심 특허 출원에 기여한 팩개발팀 장성한 선임연구원이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p오정우 책임연구원(은상) p조민기 책임연구원(은상) p박원경 책임연구원(동상) p임재원 책임연구원(동상) p김영재 책임연구원(동상) 등도 출원왕을 수상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CEO)은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30여 년 간 축적해온 기술역량과 압도적 지식재산권”이라며 “고객 가치를 높이는 구성원들의 혁신적 도전이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효성, 서울 푸르메재단 1.5억 전달

효성은 17일 서울 푸르메재단에 ‘장애 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 지원’ 사업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정민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가 지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SK케미칼, ‘행복두끼 프로젝트’ 후원

SK케미칼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충청북도 청주시 결식우리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두끼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 유현승 SK케미칼 청주공장장, 이병석 청주시장, 임은미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실장 /SK케미칼



LG U+ 임직원, ‘농촌 봉사활동’ 전개

LG유플러스는 영농철을 맞아 임직원들이 참여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농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해 경기도 연천군 소재 농과 2곳에서 작물작업에 참여했다. /LG유플러스



신투증권, 셋강생태공원 정화 나서

신한투자증권은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지난 12일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생태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기관고객그룹과 리서치센터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하천 살리기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투자증권



농심, ‘신나는 심포니 음악단’ 창단

농심은 전날 발달장애인 음악단 ‘농심 신(辛)나는 심(心)포니’를 창단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심 신나는 심포니 음악단’은 발달장애인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심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음악활동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

삼성디스플레이 이주형 부사장 SID 공로상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주형 부사장(사진)이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2023 스페셜 레코그니션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은 SID가 디스플레이 기술 및 업계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에 수여한다. 1972년 처음 제정돼 회원사가 아니라도 공로에 따라 시상했다. 올해에는 6명이 영예를 안았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차 휠핑 시즌4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가 쉽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체험 플랫폼 ‘휠핑’ 시즌4 참가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휠핑은 자동차의 휠(Wheel)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손쉬운 캠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차가 2020년 처음 선보인 플랫폼이며, 시즌 4를 맞아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현대차는 휠핑 시즌 4를 맞이해 기존과 달리 휠핑 전용 캠핑장으로 고객들을 직접 초청하여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1박 2일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지엠한마음재단, 지역사회 전기차 생태계 구축 나서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볼트 EV 기증
나비공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이하 한마음재단)가 지역사회에 볼트 EV 전기차를 기증하고 충전소 설치를 지원한다.

한마음재단은 17일 인천시 부평구 나비공원에서 로베르토 램펠 한국지엠 사장 겸 CEO, 브라이언 맥머레이 연구개발 사장, 윤명옥 한마음재단 사무총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이병철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한국지엠 최고임원진과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기증식과 충전소 제막식을 개최했다.

‘볼트 EV’ 전기차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



한국지엠 직원(왼쪽부터), 차준택 부평구청장, 로베르토 램펠 한국지엠 사장 겸 CEO, 브라이언 맥머레이 연구개발 사장, 이병철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 윤명옥 한마음재단 사무총장이 17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나비공원에서 볼트 EV 전기차 기증식 및 충전소 제막식을 축하하고 있다.

는 부평구자원봉사센터에 한 대가 전달되며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주민 공공

시설인 나비공원 내 전기차 충전소 1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두나무, ‘기후변화 생물지표’ NFT 발행

1년간 15개 발행... 무료 배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기후 변화로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환경부 산하 4개 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

생태원)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지표(CBIS)’를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변화 생물지표’는 기후변화로 계절 활동, 분포역, 개체군의 크기 변화가 뚜렷해 정부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두나무와 환경부 산하 4개 기관이 주최하는 ‘자원순환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기후 변화로 지구의 생물이 15분에 1종씩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19일부터 1년간 총 4차례에 걸쳐 15개의 NFT를 발행하고, 무료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늘의 날씨

5월 19일 (금)

음력 : 3월 30일

수도권 날씨

16~2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13/19

파주 14/27

서울 16/28

인천 16/26

수원 17/28

평택 15/28

연천 13/28

동두천 14/28

가평 14/26

양평 15/26

용인 1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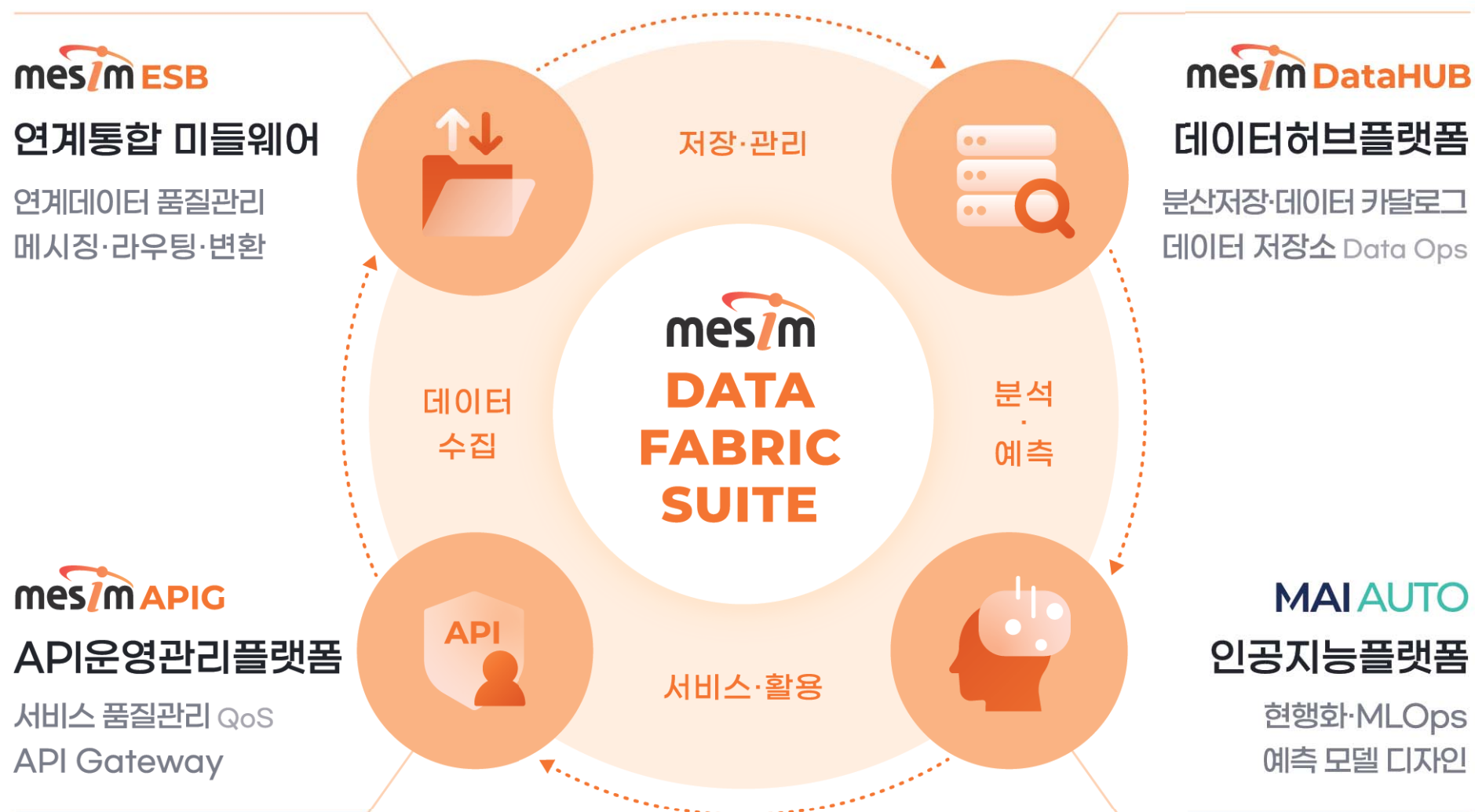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금융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코로나감염병이 통제되면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착용 해제에 이어 며칠 전엔 코로나 엔데믹 마저도 선언된 현재, 많은 국민들은 봄의 훈기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다가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작년 초 대비 2~3배 치솟은 대출금리는 하락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금의 금융시장이 금융당국의 바람대로 과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코로나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제도준비위원회(연준)는 시중에 무려 4~5조 달러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억제에 위해 연준은 2022년 1월 0.25% 이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2023년 5월 현재 무려 5.25%가 됐다. 짧은 기간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맞이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역으로 단기간에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한 조치와 정책추진은 자본주의 역사

에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매각,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에 대한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과 위시설 재연 및 이후 해당 은행에 대한 JP모건의 인수추진 등과 같은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은 연준의 긴축적 금리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행들은 총부채에서 예금비중이 높아서 금리인상시기에 핵심 예금고객에 대한 수신금리 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수익률을 찾는 고객층은 예금인출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역은행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이다.

한국도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0년 5월에는 0.5%로 낮췄다가 유가상승과 같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자 인플레이션을 위해 2021년 8월에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3.

50%까지 인상했고, 언제 정책금리를 또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필자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SVB 사태 이후 도드-플랭크뱅크 복원에 의한 연준의 은행건전성 강화조치와 함께 상업은행들의 대출기준 강화 등에 의한 신용경색이 미국발 글로벌 침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칫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신용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은 국제환투기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비의 한 맥락으로 필자는 코로나감염병 발생후 2020년 3월말 이전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유예 등의 정부조치에 의한 처리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코로나로 연장된 금융부채에 대한 부실의 현재화 준비(예를 들어 차주의 상환능력 분석과 대손충당금 설정 확대 등)와 함께 일정 기간 연기된 만기여신에 대한 세부적 상환방법(예를 들어 이자납입, 채무구조조정 등)이 지체없이 충실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P2P금융과 암호화폐시장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보통의 금융부 기자가 그러하듯이 처음 출입한 곳은 제2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였다. 가장 관심있던 분야는 핀테크 기업의 P2P금융이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횡령 사고가 터졌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것은 P2P기업도, 수익만 보고 뛰어들어 투자자도 아니었다. 금융당국과 국회의 대처였다. 이것을 예방할 만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들이 약 2년(2018~2020년)이 넘도록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권으로 편입해 이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으로 바꾼 P2P금융을 또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의 P2P금융시장과 암호가상자산시장이 겹치고 있어서다.

이날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테라USD·루나 폭락사태와 ▲암호자산 대출플랫폼 셀시우스 파산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원인이 과거 전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라USD·루나 폭락사태를 보면 당초 테라 1개와 1달러어치의 루나는 가격안정화를 위해 교환이 가능했다. 투자자가 시장에서 1달러 만큼의 루나를 매입하면 테라 1개로 교환할 수 있고, 반대로 테라 1개를 사면 1달러어치의 루나로 교환할 수 있었다.

문제는 테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예컨대 테라 1개의 가격이 0.9달러가 되면 차익거래자는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한 뒤 또다른 투자자에게 루나를 팔아 0.1달러의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테라 1개를 루나로 교환했기 때문에,

테라는 줄고 루나는 늘며 가치가 하락한다. 가격이 떨어진 루나를 팔고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의 행렬이 더해지면 루나의 가치 하락은 견잡을 수 없어진다. 애초부터 지속 가능한 영업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셀시우스 파산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3AC 파산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고위험 자산 투자, FTX는 불투명한 내부거래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노력을 들이게 된다는 의미다. 암호자산은 국경이 없어 피해범위가 P2P금융 정도에서 그칠리가 없다. 거래소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도 암호자산업체의 정확한 리스크 평가와 투자자보호 규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yul115@metroseoul.co.kr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8		4	
				9	4	3	
	5		2		1		8
	1						3
8							7
	6						5
	7		3		6		4
			5	1	8		
		8		9		5	

	4			6			3
8		1		9		4	7
1				7			5
5				3			2
6		3		1		7	4
	5			4			2

정답

8	9	3	6	7	8	2	1
2	6	4	8	1	9	9	8
8	7	1	9	2	8	6	3
1	9	6	7	8	8	2	4
4	2	9	6	9	1	7	8
7	8	2	4	9	9	1	6
6	8	8	1	9	2	4	7
9	4	2	8	7	6	1	8
9	1	7	9	8	4	8	2

8	2	1	9	7	6	8	9	4
9	8	9	4	2	8	7	1	6
7	6	4	8	1	9	8	2	9
2	1	6	7	8	8	9	4	9
8	4	9	6	9	1	2	8	7
9	7	8	2	4	9	6	8	1
4	9	7	8	6	2	1	9	8
1	9	2	9	8	7	4	6	8
6	8	1	9	4	9	7	2	3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5월 19일 (음 3월 3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신용으로 밀의 사람에게信망을 얻는다. 48년생 고집부리다 야군이 적군으로. 60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에 이익을. 72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하지 마라. 84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르는 사람 막지마라.



소

37년생 행운이 이어지니 훈훈한 인심을 보내자. 49년생 이루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다. 61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7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지 못한다. 85년생 재혼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호랑이

38년생 공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팔 난다. 50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아가 좁다. 62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편하다. 74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의 턱은 잇는 법이 니 비워라. 86년생 오후에 갑자기 병문안 갈일이 생긴다.



토끼

39년생 서북 방향에서 과거의 귀인이 다시 찾아온다. 51년생 기대를 접으니 결과에 감사. 63년생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75년생 같이한 동업자에게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 87년생 뿌린 대로 걷는다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용

40년생 사돈만나서 대인관계에서 유약하지 말도록. 52년생 자식의 승진은 자식에게 맡겨놓자. 64년생 우물가에서 승능 찾듯이 서두르지 말자. 76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88년생 부동산 매매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살펴라.



뱀

41년생 동창회에서 만난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여 베풀라. 53년생 나의 결점을 찾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중요. 65년생 오후에 차량 안전에 주의. 77년생 더 노력해야 개선된다. 89년생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니 산만한 마음도 정리.



말

42년생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인색하지 마라. 54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보인다. 66년생 신용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78년생 불평보다는 상대방 처지에서 이해하라. 90년생 이금심도(以琴心挑)하듯 휴일날 취미생활을 하자.



양

43년생 가족에게 뽀뽀한 태도는 힘만 든다. 55년생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67년생 상사와 대화 시 언제나 겸손하여지자. 79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공색하다. 91년생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의 도는 엄하다고 했는데.



원숭이

44년생 활력이 있지만 건강을 조사해 보자. 56년생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니 습득하자. 68년생 근면하고 겸손한 배우자는 인생의 선물. 80년생 금할수록 돌아가서 내실을 찾자. 92년생 연봉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베풀라.



닭

45년생 아찌다가 술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57년생 잘못된 만남으로 양다리 되지 마라. 69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니 승부사이다. 81년생 가정에서 부화부순(夫婦不睦)해야. 93년생 이른 아침부터 손조로운 하루로 즐겁다.



개

46년생 거울은 혼자서는 울지 않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58년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양보하니 일이 풀린다. 70년생 지나치게 겸손해도 실례가 될 수. 82년생 동료와 대인관계를 살뜰하게. 94년생 새벽에 일어나니 온 주변이 꽃동산이다.



돼지

47년생 독단적인 결정은 손재수를 부른다. 59년생 남을 원망하지 마라 부족한 것은 나의 탓. 71년생 외국어 공부로 미래를 대비하라. 83년생 친구 만나 의외의 지출이 많다. 95년생 머리가 복잡하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후회 말라.



김상회의四季

이순신 장군

4월에 이순신장군의 탄신일이 있었다. 오늘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역사적 인물 중에 으뜸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일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대왕은 왕으로서 지존의 위치에 있었기에 생전은 물론 승하하신 뒤에도 누린 분이지만 장군은 사후 몇 백 년이 지나서야 그 공을 추존 받은 분이다. 그러한 분이 존재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우리나라 역사의 대표적 구국영웅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명장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한결 같이 국가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넬슨제독이 그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장군의 일생은 대부분 시기질투와 모함의 연속이었다. 임금인 선조에게 버림받았고 수많은 모함으로 파직되어 옥살이를 했으며 한 인간으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군사적으로도 관련 자료를 보자면 당시 조정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장군이 정부와 명나라 육군에게 식량 무기 등이 부채 조종 등 각종물자와 진상품까지 지원했다고 한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갈 곳 없이 몰려드는 피난민들의 생계까지 직접 챙기는 가운데 전쟁을 수행해야 했으며 장군이 어렵게 마련한 수군의 식량도 같은 편인 육군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마음대로 빼내어 갔다고 한다.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뛰어난 지략과 전술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23전 23승 불패신화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냈다. 또한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보면 전투에 나가기 좋은 날도 주역 점수를 쳐서 뽑았으며 조선시대 문무를 겸비한 군인으로서 천지의 흐름을 읽어 전술에 활용한 분이다. 세상을 읽고 보는 탁월한 기운을 갖춘 분 가슴에 새겨지는 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9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이알: 크로니클스

JR (French, born 1963), The Chronicles of New York City, 2018-19 (detail) © JR/ARTNET

JR: CHRONICLES

2023. 05. 03 Wed - 08. 06 Sun

LOTTE
MUSEUM OF ART

롯데뮤지엄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7층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 화제의 전시, 전세계를 캔버스로 펼치는 희망 연대기

N 제이알 전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은 신영증권, LG전자,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정밀화학,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코리아세븐,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캐피탈, 호텔롯데,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알미늄, FRL KOREA, 롯데GRS, 캐논코리아, 대흥기획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큰한 라면에 종이컵 가득 와인… “먹을만 하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199

드라마 속 장면 ‘신성한, 이혼’

솔직해질 시간이다.

먼저 얼큰하게 끓인 라면에 물컵이든 맥주컵이든 와인 팔팔 부어서 같이 마신 사람 손 들어 보자.

다음은 소주. 보이는 와인잔 하나 꺼내와 투명한 소주를 따라서 진짜 향이 달라지는 지 잔을 빙빙 돌려본 사람은 나머지 손도 마저 들자.

두 손 다 들고 말았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을 보고서다. 피아니스트였던 이혼전문 변호사는 근사한 와인셀러에서 소주를 꺼내 와인잔에 따라마시고, 이혼을 앞둔 남자는 라면으로 쓰린 속을 달래면서 와인을 반주로 벌컥벌컥 들이킨다. 이 무슨 괴상한 조합인가 싶는데 어느새 따라하고 있고, 또 오묘하게 잘 어울린단 말이다.

병 밑바닥의 흠에 엄지손가락을 딱 끼우고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처럼 능숙하게 따른다. 와인잔을 한두 번 돌린다. 스웰링이



드라마 ‘신성한, 이혼’ 화면 캡처.

다. 코 가까이 가져다 향을 한껏 들이마시더니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공기와 함께 ‘후루루루’ 마신다. 남은 술은 마개를 꼭 닫아 와인셀러 안에 다시 넣어둔다.

소위 배운 남자의 와인 마시는 장면 같지만 와인잔을 채운 것은 바로 소주였다.

“그거 알아? 소주도 디캔딩이 된다. 공기랑 살짝 만나면서 목 넘김이, 카.”

승소 소식에 사무장이 소주가 달다고 하자 변호사는 잔이 예술이라며 이렇게 답한다.

공기와의 접촉면이 넓어지면 와인의 맛과

향이 더 좋아지게 된다. 디캔딩의 원리다. 소주를 따르니 특유의 알콜향이 더 넓게 퍼지며 코를 찔렀지만 뭔가 증명할 순 없는 순함과 목넘김이 있다. 작은 소주잔으로 한 입에 탁 털어놔야 제 맛이라고 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와인잔에 소주먹기도 해볼만 하다.

라면과 와인의 조합은 사무장이 만들어낸다. 별거 중인 그에게 아내의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한다. 청양고추 듬뿍 넣은 칼칼한 라면조차 한 입 넘기기 힘든 상황인 셈.

할머니에게서 딸로 주인장이 바뀐 라면집은 잔술 메뉴가 소주에서 와인으로 바뀌

었다. 한 잔에 오천원. 와인이라도 마시니 막혔던 속이 뚫린다. 아예 와인병째 받아든다. 잔당 가격이니 주인이 볼 새라 넘치기 직전까지 팔팔 따라 급하게 마신다.

와인을 마시는 장면 중에 지금까지 가장 슬펐던 것은 영화 ‘사이드웨이’였는데 이 드라마도 못지 않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테이블 아래 숨겨두고 슈발블랑을 콜라컵에 따라 먹는거나 라면에 숨도 못쉬고 와인을 삼키는 거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슬픔이다.

와인 네 잔에 라면 하나. 라면이 3500원인데 잔 와인값으로 2만원이 나왔다.

라면도 얼큰한 국물요리니 와인도 최상의 마리아주는 포기. 다만 같이 마실만 하고 묻는다면 ‘오케이’다. 조미료 감칠맛에 맞게 와인도 다소 진득하고 향신료 느낌의 레드와인이라면 더 좋다.

변호사는 와인잔엔 소주를 따라 마시더니 막상 와인을 마실 때가 되자 종이컵에 마신다.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이, 와인이 종이컵에도 디캔딩이 된다?”

종이컵에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이지만 맛은 좋기만 하다. 역시 와인, 아니 대부분의 술이 그렇지만 정해진 격식보단 어떤 기분에서 누구와 함께 마시는 지가 더 중요하다.

/smahnt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초인은 주체적 의지에서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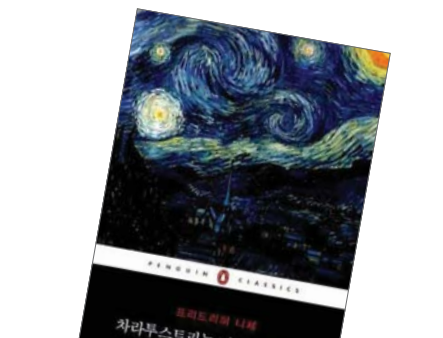
‘신은 죽었다’는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문장이다. 니체는 인간이 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오롯이 서서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야 한다고 주장한 철학자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그의 이런 사상이 잘 담겨 있다.

동굴에서 수양하던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하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동굴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줄타는 광대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던 군중에게 위버멘쉬(초인)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초인이 되려면 대지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대들에게 하늘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알든 모르든 독을 섞는 자들이다”고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그는 인간 정신에는 총 세 단계의 변화가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낙타에서 사자, 사자에서 아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무거운 짐을 싣기를 바란다. 무거운 짐을 지고 총총히 사막으로 들어가는 낙타처럼, 정신은 자신의 사막으로 서서히 침잠한다. 어느 날 졸졸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이 사자로 진화한 것. 사자는 자유를 쟁취해 사막의 주인이 되려 한다.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를 거부하고 ‘나는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차라투스트라는 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홍성광 옮김/뎡컨클레스코리아

는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정신에 왜 사자가 필요한가? 체념과 경외를 아는, 짐을 지는 낙타로는 왜 만족하지 않는가?” 그는 자답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 그것은 오직 사자의 힘으로 가능하다”

사자보다 강한 존재는 아이다. 아이는 사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아이는 순진함이자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자 유하다.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이고 최초의 움직임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창조의 유희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며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속세를 등진 정신은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500쪽. 1만3000원.

/김현정기자 hjk1@

저널리즘 선언

저널리즘은 위기에 빠졌다. 사람들은 저널리즘이 권력 감시, 진실 추구의 기능보다 당파성 강조, 허위 정보 양산, 갈등 조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의제 설정 능력은 소셜미디어에 빼앗겼다.

바비 젤러 외 2명 지음/신우열, 김창욱 옮김/오월의봄

저자들은 소수 엘리트만을 대변하는 행태, 현실과 동떨어진 언론 규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대중. 이들 세 가지 접점을 다시 살피고 재규정해야 저널리즘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168쪽. 1만4800원.



지리를 알면 보이는 것

모든 사람은 공간에서 살아간다. 고로 공간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일은 곧 인간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인문지리학은 ‘인간은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공간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학문이다. 공간의 과학을 이해하면 일상의 경관에 어떤 상징이 숨어 있

는지, 돈은 어디에서 모이고 어디로 퍼지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모든 공간에는 숨겨진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을 해석할 때 비로소 ‘현상’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288쪽. 1만8900원.

정은혜 지음/보누스



우리가 싸우는 이유

사람들은 매일 타인과 갈등을 겪는다. 다른 세대라서, 성별이 달라서, 다른 편이어서 그런 걸까? 책은 사람들이 왜 싸우지도 모르면서 싸운다고 지적한다. 외로움이 혐오의 원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보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동시대에 살지만 각자

의 세계에 갇혀 산다. 미디어 필터버블과 에코 챔버로 인해 감정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고독을 온라인에서 풀려고 시도한다. 책은 집단 간 갈등 증폭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가 분열이 아닌 조화를 이루며 살 방법을 제시한다.

246쪽. 1만7000원

고승연 지음/플랜비디자인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개학 초 한달간 ‘스쿨존’ 과속·불법주차 4만7000건 적발 /사진 뉴시스
▲ 서울 일반고 지원율 양극화…4년 새 ‘26배→62배’

▲ 돌봄 대기 ‘0’ 선언…모듈러·비정규직 ‘충동원’ 관찰을까
▲ 문 닫는 사립대에 장려금…“해산 유도 효과” vs “먹튀 우려”



▲ 서울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사진 뉴시스
▲ ‘빗물받이 집중 청소’…서울시, 침수 예방 대책 시행



중앙잔디광장*에 조성된 연못분수.



단지 내 유실수 정원(위)과 조형물.

아이들은 공룡과 뛰놀고... 연못분수서 정취 즐기며 ‘休~’

아파트의 미학(美學)

호반써밋 더 퍼스트 오션

인근에 해양관광레저 시설 ‘웨이브파크’
최고 29층 6개 동, 578세대 규모로 조성
가변형 벽체로 성향·개성따라 평면구성

주 출입구에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
중앙 잔디광장에 여가 가능한 연못분수

티라노사우루스 테마 로스트벨리 설치
카페·GX룸·도서관 등 문화공간도 마련

최근 찾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호반써밋 더퍼스트 오션’.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 2번 출구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약 2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시화나래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해양관광레저 복합 시설인 ‘웨이브파크’가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호반써밋 더퍼스트 오션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578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9㎡A 166가구 ▲59㎡B 58가구 ▲59㎡C 58가구 ▲84㎡A 240가구 ▲84㎡B 56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호반’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대부분의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4베이(BAY) 위주의 설계(일부 가구 제외)와 판상형·탑상형 설계 등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평면 설계가 적용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가변형 벽체로 소비자의 성향과 개성에 맞춰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 가구를 배치하고, 주방 팬트리 등 수납공간이 선택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주 출입구에 조성된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됐다. 지하 주차 설계로 보행 동선을 분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든 것. 단지 주 출입구에는 어린이 통학 승·하차 공간도 있었다.

단지에는 ‘호반써밋 더퍼스트 오션’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앙잔디광장’이 조성됐다. 광장에는 연못분수가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에게 쾌적한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분수 인근에는 티라노사우루스를 테마로 한 대형 놀이터 ‘로스트벨리’가 설치돼 웅장한 느낌을 선사했다.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담소와 휴식을 통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유실수 정원’과 티하우스 등이 마련돼 입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하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켄큰, 카페,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트리케라톱스와 아기공룡 등 다양한 공룡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과 돌무더기 등을 만들어 ‘육생 바이오 톱(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완성했다.

/사진·글=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분수 인근에는 설치된 티라노사우루스를 테마로 한 대형 놀이터 ‘로스트벨리’.

개인대출 — 소호대출



은행 금리경쟁에
인하 제감 기대
08

metro®

Life

콜대원키즈펜시럽
판매중지
N1



열 손가락 끼워 하나씩 ‘쫄쫄’ 40년 정상 지킨 콘스낵 ‘센터’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웰푸드 ‘꼬깔콘’

열 손가락에 끼운 뒤 하나하나 입으로 벗겨 먹는 재미가 있는 ‘꼬깔콘’은 국민 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짭짤한 맛은 물론, 먹는 즐거움 외에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1983년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에서 출시한 꼬깔콘은 40년 넘는 기간 동안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아

왔다. 출시부터 독창적인 모양으로 인기를 독차지했으며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스낵시장에서 간판 제품으로 떠올랐다.

꼬깔콘은 출시 첫 해인 1983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38년간 거둔 누적 매출액이 무려 1조4850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매출 실적을 봉지 개수로 환산하면 약 28억 봉지에 달한다. 이를 일렬로 늘어 놓으면 지구 둘레를 약 17 바퀴 이상 돌 수 있는 많은 양이다. 꼬깔콘은 지난해에만 8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으로 인기 정상에 있음을 보여줬다.

◆출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

꼬깔콘의 인기가 좋은 것은 모방할 수 없는 맛과 형태 때문이다. 고소한 옥수수 맛과 꼬깔 모양 등 꼬깔콘은 다른 과자들과 비교해 독창성이 빛나는 스낵이다.

꼬깔콘은 1982년 5월 롯데웰푸드와 미국 제너럴 밀즈사와의 기술 제휴로 탄생했다. 롯데웰푸드는 꼬깔콘 생산을 위해 1983년 평택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1983년 9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꼬깔콘은 첫 해인 1983년 약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듬해인 1984년에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0억원의 매출을 올려 범상치 않은 제품으로 평가 받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꾸준히 400억~5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난해 2021년까지 매년 850억~1000억원에 이르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는 30여년만에 30배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맛의 다양화 패키지 리뉴얼

꼬깔콘은 최초에는 고소한맛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군옥수수맛, 매콤달콤맛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고소한맛과 군옥수수맛은 아이들부터 장년층까지 폭넓은 소비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매콤달콤맛은 20~30대층에서 선호하는 맛이다. 대표제품들 외에 꼬깔콘은 매년 시즌용 제품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다.

2021년 말에는 2012년 이후 9년만에 패키지 디자인 변경도 진행했다.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줄여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살렸으며, 제품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삼각뿔 모양에 착안해 역삼각형 형태의 흰색 라벨을 로고 바탕에 적용, 꼬깔콘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했다.

제품의 전통성을 강조하는 ‘Since 1983’ 문구를 제품 로고 위에 표기하고 ‘소리까지 맛있다!’라는 제품 슬로건도 강조했다.

꼬깔콘 포장지 후면에는 꼬깔콘 ‘더맛있게 즐기는 법’이 소개되고 있다. ‘꼬깔콘을 손가락에 끼워먹기’, ‘손가락에 끼워 생크림 찍어 먹기’, ‘꼬깔콘에 아이스크림 채워 먹기’, ‘꼬깔콘에 설탕이 짜서 먹기’ 등이 소개되어 마니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꼬깔콘 1980년대 TV 광고.

1983년 출시된 옥수수 스낵 ‘간판 제품’
지난해만 매출 800억 육박… 인기 인증
꼬깔 모양에 옥수수 맛까지 독창성 ‘매력’

고소한맛으로 시작해 다양한 제품 개발
아이들부터 장년층까지 소비자층 넓어
시즈닝 버무린 ‘꼬깔콘 크리스피치킨’도



꼬깔콘 크리스피치킨.

/롯데웰푸드

실제로 온라인 상에는 ‘치킨 시킬때 오는 양념치킨소스를 발라 먹으면 매우 맛있다. 이게 없으면 떡꼬치 소스를 발라 먹으면 된다’ ‘누텔라를 살짝 발라먹으면 특유의 단짠단짠 조합에다 꼬깔콘의 특유의 옥수수+기름의 고소함에다 헤이즐넛 향의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접 먹어보고 추천하는 이색 조합이 넘쳐난다.

지난해 롯데제과와 롯데웰푸드의 통합 법인 출범을 기념하며 꼬깔콘 고소한 맛을 간편식 브랜드 ‘Chefood(체푸드)’에 적용한 특별한 제품도 있다. 100% 닭다리 순살에 ‘꼬깔콘 고소한 맛’ 시즈닝을 버무려 맛을 낸 ‘꼬깔콘 크리스피치킨’이다. 담백하고 고소한 꼬깔콘의 풍미를 그대로 담은 순살치킨으로 남녀노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한 입 크기 순살치킨으로 맥주 안주 또는 간식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치킨마요 덮밥, 치킨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꼬깔콘 크리스피 치킨은 대한민국 대표 스낵인 꼬깔콘의 바삭고소함을 순살치킨으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게 개발한 가정간편식”이라며 “앞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기간 사랑받아온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맨시티, 레알 4-0 완파…챔스 결승 진출 /사진 뉴시스
▲김은중호, 브라질 전후 마치고 ‘결전지’ 아르헨티나 입성

▲한국 남녀 핸드볼 대표팀, 푸마 입고 된다
▲최경주·추성훈 등 SK텔레콤 채리티 오픈서 5000만원 기부



▲길어지는 中 손준호 구금…축구협회, 전문가 파견 예정
▲프로농구 LG, 양홍석 영입…7억 5000만원·5년 /사진 뉴시스